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79 1981년7월30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July 30.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7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84

◇결혼식을 마치고 버킹햄 궁전에 돌아온 촬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양이 궁전 발코니에 나와 50만 인파에게 손을 흔든 후 키스하고 있다.

요란한 결혼식에 60만인파

촬스황태자 부부 밀월 여행중

(런던=영국) 29일 역사적 결혼식을 올린 촬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양은 기차를 타고 「브로드랜즈」에도착. 신혼의 첫밤을 지냈다.

이곳은 황태자의 할아버지벌 되는 마운트바튼 백작이 살던 곳이다. 이들은 이곳서 이틀을 지낸 후 지중해에서 황실요트를 탈예정이다.

이날 아침 버킹햄궁전에서 식장인 세인트·폴 성당에 이르는 3킬로의 연도에는 약 60만명의 인파가 늘어섰다. 5개월간 준비한 결혼식은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됐다.

캐나다를 대표한 트루도 수상, 레이건 미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등 3,100명의 특별하객이 모인 성당에서 다이애나는 아버지 스펜서 백작의 팔을 잡고 우아한 걸음으로 입장했다.

20세의 신부는 이 결혼식에서 가장 비밀로 부쳐졌던 긴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금과 18카랏트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말굽 모양의 장식물이 흰 드레스에서 반짝였다.

32세의 촬스는 해군지휘관 복장이었다. 주례 캔터베리의 룬씨 대주교는 이들이 부부임을 선언했다.

다이애나는 방탄유리로 만든 특별마차를 타고 버킹햄궁을 나왔다. 그녀 마차는 엘리자베스•여왕을 선두로 한 긴 결혼식장행 행렬의 마지막이었다.

연도의 사람들은 여왕이 지나가자 국가를 부르며 환호했다. 촬스 황태자는 영국과 캐나다 등 영연방의 왕위를 잇는다.

한국경제인연합회 캐나다등에 지부설치

(서울17일=연합)한국경제인 연합회는 캐나다, 프랑스, 벨지움 네델란드등에 해외지점을 설치, 외국자본도입 대상국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오랫동안 외국자본도입 대상국을 일본에 편중시켜 왔다.

한국의 중요 경제단체인 경제인연합회는 금년말까지 위 4나라에「외자유치센터」를 설치, 이들 나라로부터 자본도입과 더불어최신 기술을 유치해서 82년에 실시될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게될교두보 역할을 한다.

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래 일본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자본중반이상을 차지했다고 한 관리는 전했다.

전대통령 시상 "국제유대에 공헌"

(서울30일=연합) 인도 국가통합기구는 전대통령을 국제유대를 증진한 정치인으로 선정,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가통합과 국제이해를 추구하는 이 단체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도모한 지난 1년간의 정치인으로 전대통령및 슈미트 서독수상을 선정했다.

인도의 영어주간지「인터내서널·리포터」지가 주관한 인기투표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이 단체는 전대통령이 한국의 평화를 다졌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정에 공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80년도의 인물"로 지미·카터 전 미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을 선정했다.

노년연금등 배달 29일 하루에 한해

우편배달부노조는 우편파업이 계속중인 29일 노년연금, 가족수당금등 7월분 정부수표를 배달했다. 이것은 노년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취해진 예외 조처이다.

이사장에 김오석 체육회 이사회

재한체육회캐나다지부 이사회는 공석중인 이사장 후임으로 김오석 부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29일밤 체육회사무실(블루어·스트릿 637A 번지)에서 1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는 심재환 총무이사와 장영채 이사를 고문으로, 심태섭 이사는 총무이사로 각각 선출했다.

고문이 된 심재환, 장영채씨는 전체육회장이었다.

부이사장 선임은 이사장에게 일임되었다. 지금까지 이사장이던 김태선씨는 뱅쿠버로 이주했다.

체육회이사회는 회의 정족수제도를 폐지, 참석인원수에 관해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

이사회는 오는 15일의 전국체전을 적극 돕기로 결의했다.

바니·사드르 이란 탈출

군용기납치, 프랑스에망명

(파리)코메이니의 미움을받아 도피생활을 시작한 바니·사드르 전이란대통령이 29일 보잉707기를 납치, 탈출했다.

프랑스 정부는 사드르와 동반자 3명에게 즉시 정치망명을 허용했다.

수염을 깎아 더 수척하게 보이는 사드르는 7주전 생명의 위협을느껴 테헤란에서 잠적했다.

함께온 게릴라그룹의 대장 마주드·라자비는 "우리는 코메이니 반대운동을조직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란요청에 따라 비행기와 4명의 승무원을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한때「샤」전 이란왕의 비행사였던 「메지」대령은 야간훈련을 핑계로 화물비행기 707기를 격납고에서 끌어내어 근처 트럭에서 대기중이던 사드르와 2명의 소령및 라자비를 재빨리탑승시켰다.

이들은 승무원을협박, 이란 공군전투기들의 추격을 피하면서 터키로 도망쳤다.

사드르는 반정부군이 있는 이란의 산악지대에 피신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그는 49일간 테헤란 중심가의 라자비집에 머물러있었다고 라자비는 말했다.

사드르는 79년「샤」의패망때까지 살던 파리교외의 하류급 아파트에 입주했다.

방탄조끼를 입은 프랑스기동경찰과 사격수들이 10층아파트를 에어싸고 코메이니파의 공격에 대비하고있다.

◇ 사드르 이란 대통령

이란, 또 지진 사상자 4~5천 추정

(앙카라=AP) 이란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 4~5천명의 사상자(추정)를 내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28일 이란남부 커만지역을 강타한 이번 지진은 수천명의 사상자와 수십만의 이재민을 낳은 대지진이다.

지진참사 현장에 있던 파스통신 특파원은 가족을 잃은 주민들이 "신은 위대하다(Allah Akbar)"며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50여명의 의사로 구성된 의료진이 부상자를 돌보고 있다.

권투선수 김철호 세계타이틀 방어

(부산30일=연합) WBC 세계 수퍼·플라이급 권투챔피언 김철호 선수는 29일밤 부산서 열린 선수권전에서 미국의 윌리·젠슨을 13회에 KO, 타이틀을 방어했다.

이로써 김은 지난 1월세계선수권자가 된 후 2번째로 타이틀을 방어했다.

13회전 공이 울리자, 김은 젠슨의 복부에 레프트, 라이트·훅을 연타, 젠슨은 1분20초만에 다운됐다.

젠슨은 초반전 유연한 보디·워을 쓰면서 강력한 잽을 구사, 20세의 김을 고전케하고 타이틀을 뺏을 것 같이 보였다.

김은 과거와 같이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스태미나를 발휘, 9회에서 초반전 실점을 만회했다.

김은 26세의 젠슨의 배를 주로 공격하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다.

캐딜락워렌티 연장 GM자동차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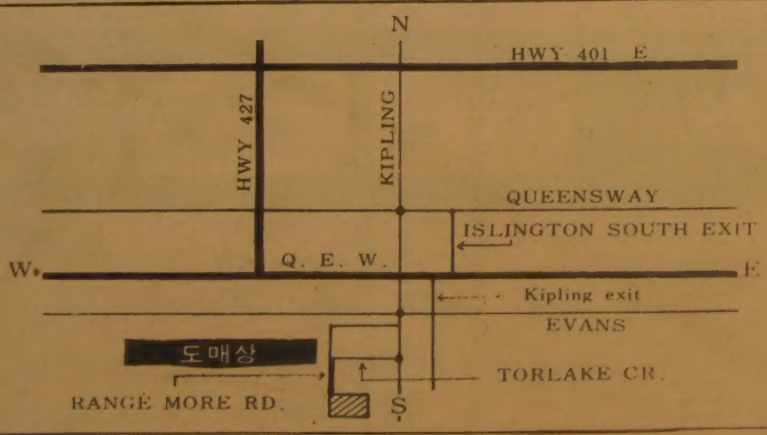
(디트로이트) 지난 22일 디트로이트의 제네랄 모터스 본사는 캐딜락 디비젼의 81년도 VH·6·4엔진 워렌티를 5년, 혹은 5만마일까지 연장하며, 종전의 1만2 천마일, 혹은 1년내의 완전보장과 2년제외 100달러디덕티블 서비스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휴간 · 안내>
본사는 오는 3일 시빅·홀러데이를 맞아 휴무합니다. 3일자 한국일보는 4일 발행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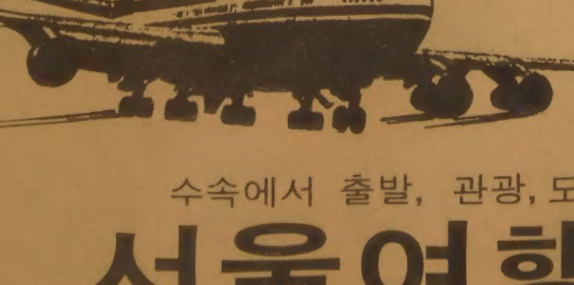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한 인 연 합 상 사
한국인이 키워주는 한인도매상


★주문전화 : 251-6578 MISS 정
27 RANGEMORE RD. TORONTO, ONT.
영업시간 : 월~토 8시~6시30분
※토요일 오후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어디로 모실까요? IATA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 $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TORONTO.
B) 535-8801 R) 293-9970
535-6004 최 동 주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M5S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우편노조 협상조건 재논의

파업협상 진척 없어

◇우편파업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기업주들. "부모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내나"는 한 소녀의 항의와 "상인들아 단결하자"는 피켓이 보인다.

29일로 연 30일간 계속된 우편파업은 28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협상전 노조(CUPW)측 대표는 노조간부들과 만나 협상할 내용을 논의했으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움직임은 협상 시작후 처음이나, 정부인사관리위원회 마우리스·캔턴위원장은 "상황은 아직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대표 재무성은 지금까지의 노조의 근본요구조건인 17주간의 유급임신부휴가, 5년근무후 4주휴가, 12번째 공휴일, 야간근무수당 인상등을 철저히거부해 왔다.

노조측의 회의때문에 28일의 협상은 2시간이나늦어졌다. 패로 우편노조 회장은 "우리들끼리 논의할것이 있었다"고 협상지각이유를 말했다.

30일을 넘긴 우편파업으로 캐나다의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은 자금난으로 도산지경에 이루렀다.

중소기업들은 우편배달중지로 현금수수를 할수없으며, 더구나 최근의 이자율 상승으로 더욱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더이상의 숨쉴 자리도 없다"고 제임스·비넷츠 캐나다 독립기업 협회장은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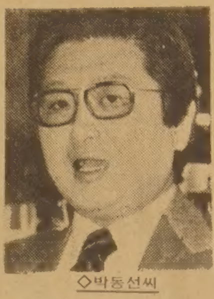
협상 중재자인 알랜·골드 판사는 이사실을 충분히 인지, 빠른시일내의 협상 성공을 서두르고 있으나근본적인 논쟁거리에 아무 진척도 없다고 판사의 측근은말했다.

박동선씨 건재

"수천만달러의 실업인"

(워싱톤27일=연합)미국의 비지네스잡지 「포춘」지는 한국국적의 박동선씨를 "아직도 수천만달러의 재산을 가진 백만장자"라고 평했다.

이 잡지는 8월10일자 에서 "수십명의 미국국회의원에게 선심을 썼던 박동선씨는 서울근교에 6백만달러가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며 런던, 워싱톤, 로스앤젤레스등을 자주방문, 쌀, 오일, 석탄, 건설업등의사업을 벌인다고 소개했다.



◇박동선씨

박씨의 사업은 개인사업이지만 수억달러의 사업이라고 지칭한 동지는 작년에 1억2,400백만달러의 매상으로 525,000달러의 순익을 올린 슈퍼마켓·체인을 일예로 들었다.

박씨는 코리아게이트(박동선뇌물사건)와 관련, 잃은것만큼 얻은것도 많다고 믿는다고 이 잡지는 보도했다.

그러나 박씨가 갖고있는 미국의 사업체는 조용하다. 미국 국세청이 박씨에게 45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동잡지는 밝혔다.

남북한 대화촉구

케네디의원 주장

(워싱톤28일=연합)남,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위해 직접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미국 에드워드·케네디 상원의원이 말했다.

27일 미상원에서 열린한국전쟁휴전 28주년 기념행사에서 케네디의원은 전두환대통령의 남북정상 회담제의를 환영하고, "평화통일은 남북한국인의 소망이며,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대통령은 지난 6월5일 통일을위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겠다고 제안했었다.

달러가치 하락계속

금리 22% 까지

30년대 경제대공황 이래 최대로 떨어지던 캐나다달러가치가 28일 전날과같은 수준의 81·53(대미달러)에 일단 멈추었다.

캐나다 달러가치 하락은 캐나다 금융시장의 현금고갈을 몰고왔고, 이자율을사상최고의 수준인 22% (우대금리)까지 올렸다.

달러가치 하락은 캐나다가 지고있는 외채상환의부담을 증가시켰다. 또 저축이자율도 19%까지(머첸타일은행 정기예금)올랐다.

캐나다 달러는 비록미국달러에 계속 평가절하됐으나 영국파운드에 15%, 프랑스 프랑에 23%, 서독마르크에는 24%, 일본 엔에는 2%씩 각각 평가절상됐다.

그러나 캐나다달러의 4분의3은 미국달러와 거래를 이룬다는데 문제점이있다. 캐나다는 외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에게더 많은돈을 갚아야 한다.

경제전문가 그란트 씨는 "캐나다의 외채 상환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정부가 계획하는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rogram)의 투자금 수급차질이다. 현재 고금리 수준에서 단기자금 투자의 부담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전문가 앵거스·스마트씨는 "언제 캐나다달러를 사들여야할지 모르겠다 지금은 사들일 시기가 아닌것 같다"고 캐나다 달러가치하락을 예상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㉞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당시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슴은 언덕을 따라서 두줄로 내려와서 지금 뼈가묻혀있는곳을 지나갔다.

그의 이야기로는 어떤때는 사슴이 너무밀려와서새끼들이 넘어져 발로채여몸이 부서졌고, 이러한 사슴떼들이 속도를 늦추지않고 약 2주동안 계속했다고 한다. 아마도 노인은 과장을 했고, 노인의 기억은 사실보다 허황했는지도 모르지만 얼음밑에 수많은뼈가 묻혀있는것은 사실 이었다.

남골당에 관해서 좀더캐어묻자 노인은 계속해서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슴을먹는 인디언, 즉이데엘델리족이 매년 가을에 호수사이의 좁은곳에 와서 각자가 한상자의 라이플실탄을 가지고 와서 총탄이 다 떨어지거나 사슴이 다 죽거나 할때까지 사슴을잡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살아남은놈은 지나갔고, 또인디안들이 그곳을 떠날쯤되면 좁은강과 호수에 새로 얼은 얼음이 죽은사슴떼의 무게에 눌려서 갈라지곤 했었다고 했다.

봄이되면 얼음이녹아 사슴은 깊은곳으로 밀려내려갔다. 대부분의 사슴은 총맞은자리 위에는 전혀 손도대지 않았고,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 지만 혓바닥만 잘리운 사슴들이었다.

60여년동안 깊은 수로는 카누가 겨우 지나갈만큼 뼈다귀로 메워져 있었다.

이해 가을이되면 강물같은 사슴떼가 뜨문뜨문 그곳을 지나갔다.

사슴은 통로를 바꾸지않았지만 다만 숫자가 적어졌을 따름이다.

마치 인간은 자신들에게 돌려댄것처럼 사슴을 몰살시킨총을 휘둘렀던 인디안들을 몰락 시켰다.

끝없는 사슴떼들은 자기들에게 운명지워진 도살행위에 견디지 못했으며, 숫자가 줄어듦에따라 무차별한 도살행위뒤에 당연히따라오는 굶주림 때문에 이데엘델리족속도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런이야기는 사슴이 겨울에 서식하는 전체의 수렵지역에서는 늘 똑같은것이다.

30년대말 헤인디어 레이크에서 매년 사슴을 약 5만마리씩이나 죽였다. 지금은 헤인디어 레이크 지방과 사슴이 많아서 그 이름을따라지은 그 주변의모든곳을 합쳐도 그렇게많은 사슴이 살고있지 않다. 얼마가지않아서 이름뿐인 호수가 될것이고 사람들은그 호수에 왜 그런이름을 붙였는지도 까맣게 모르게될것이다.

바보가 아닌이상 이덴사람들만을 욕할수는 없을것이다. 그들은 항상 고되고 위험한 생활만 해왔다.

사슴은 그들이 굶주려죽지않게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긴 겨울동안 바렌에서에스키모들이 사슴때문에 살아남을수 있듯이 사슴만이 홀로 빈약한 수림에 살아남아서 이들 인디언들이살아갈수 있게 했다.

이들두 민족, 즉 사슴을 먹고사는 사람들은 백인이 이땅에 착륙하기 전에는생명을 보존할수있는 사슴과 잘 밸런스를 맞추어 살았다. 그러나 무역소가 산림속에 늘어감에따라 이사람들의 낡은 무기는 총으로 대치되었다.

이들총이 단발식 총이었을때 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

탄창을 끼우는 연발식총이 곧 범람했다.

수세기동안 그들의 역사를통해 사슴을 잡는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무기를 사용해온 이들에게 기술이나 제약없이도 사용할수있는 무기가 제공되었다. 이런 모든 이야기는 전에 많이 들어왔다.

버팔로와 남쪽평원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과연관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겠지만 약 백년전의 이야기다. 그것은 할아버지때에 일어난 이야기다.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우리세대에 일어난 일이며 아직도 일어나고있는 이야기 이다.

무역소들은 점점 돈을벌고 아직도 계속커가고 있었다.

1920년초기에 국제적으로 알려진 털무역 상사의 한 무역소는 인디언들이가져오는 엄청난 사슴혓바닥을 모두 사들임으로써 북극의 인디언 들에게 엄청난 실탄을 파는실적을 올렸다.

수천개의 말린 사슴혓바닥이이 무역소에 팔리는동안 허만잘린 수천마리의사슴은 봄철의 해빙에 썩어가고 있었다.

이데엘델리 인디언 들은 겨울 사냥터에 나오면서각자가 천개씩들은 실탄상자를 갖고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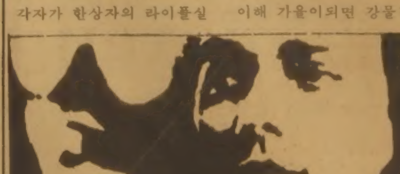
그리고 때로는 봄이오기전에 무역소에와서 더많은실탄을 가져가곤 했다.

이윤은 말할수없이 올라갔고 요즘에 말할수있는구매인의 이익보호나 짐승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실탄의 판매를 제한하자는 의견은 그당시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해서 공공연히 비난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의 무식함 때문에 자신을 망쳐버리는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당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슴을 살상하는것과 사슴을 먹고사는 사람들의파멸은 계속 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두개의 파멸을 정지시키는일이 시작되었다.

(계속)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초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중화요리·화식·캐네디안식
거구장
※환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대소연화
영업시간: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가수와밴드: 목, 금 토, 일(8시30분부터 밤2시)
가 수: 신 현 회
특 별 메 뉴
개스불로 굽는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중화요리·케네디안식
요리전문
2백대 수용무료파킹장
5 BETHRIDGE RD. ETOBICOKE
KIPLING×HWY 401서 1 블럭 북쪽 첫신호등서 좌회전
☎: 742-1618 곽정렬·김선남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同姓同本 혼인許容 검토

社會教育法 제정… 종합教育
戶籍과 住民登錄을 統合키로

成長發展沮害要因 개선심의위원회 (위원장 南悳祐국무총리)는 27일 46개 改善대상課題중 民法과 商法의 개정, 사회교육법의제정, 居住地중심행정체제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戶籍제도의 개편, 군사시설 보호구역규제완화등 社會分野 19개과제의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19개課題의 개선방향은 사회교육추진기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사회교육활동강화를위해 「사회教育館」의 설치등을 내용으로하는 사회교육법을 제정하며, 「公害배출업소(1·2種)」에 대한 환경감시업무를 중앙기관에서 …제하도록 환경보전 제도를 개선하는것등이다.

식품위생, 의약품의 認許可와 신고, 등록등 각종규제사항에 관련된 公正競爭을 제한하고있는 내용을 제거할 방침이다.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심의 위원회는 주요개선 대상과제 중 특히 국민생활과 깊은관계를 갖고있는 民法과 商法의 정비를위해서는 관련業界가 참가하는 심포지엄을 열어 폭넓은 의견을 듣기로했는데 商事法學會 심포지엄은 오는30일, 民事法學會 심포지엄은 8월중순에 각각 개최된다.

成長沮害要因 개선 社會分野19項 발표
相續에 女性지위 향상

- 企業단위勞組 자율성높여·근로자苦衷 처리制 정착
- 株式會社 最低資本制로 不實봉쇄·株式배당制 신설
- 民統線北方 제외 보호구역출입 建物개축등 自由化
- 1·2種 公害業所는 中央에서 직접 統制 하기로
- 個人택시확대·地方택시로 조정·大衆交通업소 評點

또 62년에 제정된 현행 商法에 대해서는 현실과맞지않는 부분을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을 規制, 不實기업의 활동소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주식배당제도등을 신설, 기업의 자금조달체제를 개선하며 民法에 대해서는 相續문제등에서 여성의지위향상을 모색하고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集合주택의 등기제도를 개선하고 賃借人과 傳貰權者의 권익을 기본법에서 보장하며 同姓同本결혼에 대한 제약을 푸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규제를완화, 民統線 북방지역을 제외한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제도를 폐지하고 기존건축물의 改築과 補修때의 協議制를 폐지하며 勞使自治 풍토의 조성을위해 근로자에 대한 苦衷處理제도를 정착시키는한편 기업단위勞組의 자율성을 높이기로했다.

대중교통행정을 개선키위해서는 운수사업의 認可또는 면허때 業體別로 評點制를적용하며 개인택시면허를 확대하는한편 有名無實상태인 시골택시요금제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했다.

도戶籍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호적과 주민등록을 통합시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제거하고 호적의 硬直性과 주민등록의 柔軟性을 조화시키도록하는 한편 地籍公簿와 登記簿를 통합하는것을 권구키로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개선과제는 教員人事제도에 대해 任用과 昇進의 자격기준, 韓補의 원칙을 합리적으로개선하고 교원의 號俸과 보수, 직급, 직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한편 교원의 사회적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日、臨戰態勢 강화
미사일備蓄등 크게늘려
美요구따라

【東京25日=聯】일본방위청은 미국의 일본주변해역에대한 방위력증강요구에따라 오는82년에 최신예 P3C對潛초계기 17대를 비롯, 對潛헬리콥터 11대 미사일호위함 5척등을 일거에발주하고 탄약과 미사일의 비축량을 대폭증가시키는등 유사시 임전태세와 지구전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일본교오도(共同)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오도통신은 이같은 방침이 지난17일부터 계속된3軍자위대간부들의 82년도 방위예산골격조정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이 방침은 82년도에 12대를 도입하기로 앞서결정된바있는 P3C對潛초계기를 84년도까지 일부앞당겨 17대를 발주하고 對潛헬리콥터HSS2B도 금년도에 발주한 6대의 거의2배인 11대를 발주함으로써 해상방위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말했다.

일본방위청은 또한 오는87년까지 F15전투기 1백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현재57대를 발주하고 43대가 남아있는것도 82년도에일괄발주, 예정보다 2~3년 앞당겨F15비행대대를 실전에 배치시킬계획을 세웠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현재 충원율86%인 육상자위대의 부족인원도 40%로 늘려 홋카이도(北海道)에 최우선 배치, 소련의침공에 대비하고 육상자위대의 탄약비축량을 35% 늘리는한편 해상및 항공자위대의 기뢰·어뢰·각종미사일등 구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이 통신은전했다.

善行市民·警官5명 全대통령이 표창장

全斗煥 대통령은 27일 상오 청와대에서 善行시민과 경찰관5명을 접견하고 이들에게 대통령표창을 주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愛國은 큰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입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양심과 正直에 입각해서 사는것이 곧 愛國』이라고 말하고『여러분의 행동이야말로 전국민의 귀감』이라고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善行경찰관2명에게 1계급씩 特進시키도록 배석한 徐廷和내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표창을받은 善行者들과 공적은 다음과같다.

▲權純政(48·서울九老區 鋼鐵洞·운전사)=지난22일 汝矣島지하차도에서 현금·수표등 4백85만7천원을 주위 신고。▲朴龍元(32·서울江西區 禾谷洞·회사원)=지난16일西小門육교에서 약속어음(34억3천8백만원) 1장을 주위 서울시경 民願室에 신고。▲朴容仁(45·상업·京畿道 東豆川邑生淵洞)=지난14일 南大門지하도에서 수표·약속어음(1억4천만원) 3장을 주위 서울시경에 신고。▲鄭龍永(33·순경·서울淸涼里경찰서)、安宗洙(40·순경·)=다이어 밀수범으로부터 금품유혹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

泰國商務長官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27일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泰國의 추안·리크파이商務長官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徐錫俊상공장관과 아사·쿤아프라루앙駐韓泰國대사가 배석했다.

「南北韓單一팀」 수락하라
"北의 79년제의 眞心이면 우리제의 호응을"
大韓올림픽委·체육회 促求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대한체육회는 27일 남북한체육교류및 국제경기 단일팀구성제의를 빠른 시일안에 수락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OC와 체육회는 이성명을통해『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체육인대표들과 회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북한측이 호응할때까지 성의와 인내를다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曺相鎬 KOC위원장겸 체육회장은 지난6월19일 84년의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것과 가능하다면 82년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국제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할것을 북한측체육책임자에게 제의하고 이를실현시키기위해 빠른시일안에 남북체육인 대표들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했었다.

이날 KOC와 체육회는 『6·19제의를 한지 1개월이 지나도록 북한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고 밝히고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의 6천만겨레에게 우려와 의구심을 갖게하는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말했다.

이성명은 북한은 제35회 평양세계 탁구선수권대회를 2개월앞둔 79년 2월20일 남북한 탁구 단일팀구성을 제의했고 제22회 모스크바올림픽에는 7개월밖에 남지않은 79년12월20일 남북한 단일팀구성을 제기했었다고 상기시키고『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북한측이 진정국제경기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것을 바란다면 국제경기 남북단일팀구성에 대한 실천의지를 내외에천명한 우리의 제의에대해 반대하지않을것으로믿고싶다』고 강조했다.

새韓·美大使의 對面

◇리처드·워커(가운데) 신임 駐韓美國대사가 24일 국무성에서 선서식을 마치고 柳炳賢신임 駐美韓國대사 부처및 스트롬 서몬드 상원의원과 환담하고 있다. 【워싱턴25日 UPI=聯合】

트뤼도加首相 訪韓
外務部서 公式發表

캐나다의 피에르·트뤼도수상이 오는 9월21일부터 23일까지 4일동안 南悳祐국무총리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외무부가 27일발표했다.

트뤼도수상은 訪韓기간중 정부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갖고 양국간의 雙務的인관계및 韓半島정세를포함한 국제정세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예정이라고 외무부가 밝혔다.

외무부관계자는 트뤼도수상의 공식수행원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나 마크·맥귀건外相과 高位경제관료들이 수행할것으로 알려졌다.

63년 韓·캐나다간의 國交수립이후 캐나다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訪韓하는 트뤼도수상은 訪韓기간중 全斗煥대통령과 사실상의 頂上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협력증진문제등을 포함한 공동관심사에관해 광범위한 의견을교환하며 南총리와도만나 양국간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에관해 협의할것으로 보인다.

트뤼도수상은 오는 9월30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번에서 열리는 英聯邦 수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는것이며 한국을 방문한뒤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뤼도加首相 訪韓
外務部서 公式發表

캐나다의 피에르·트뤼도수상이 오는 9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南悳祐국무총리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외무부가 27일발표했다.

트뤼도수상은 訪韓기간중 정부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갖고 양국간의 雙務的인관계및 韓半島정세를포함한 국제정세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예정이라고 외무부가 밝혔다.

외무부관계자는 트뤼도수상의 공식수행원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나 마크·맥귀건外相과 高位경제관료들이 수행할것으로 알려졌다.

63년 韓·캐나다간의 國交수립이후 캐나다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訪韓하는 트뤼도수상은 訪韓기간중 全斗煥대통령과 사실상의 頂上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협력증진문제등을 포함한 공동관심사에관해 광범위한 의견을교환하며 南총리와도만나 양국간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에관해 협의할것으로 보인다.

從來主張되풀이
總務회담 國會소집異見 못좁혀

民正, 民韓, 국민당총무들은 27일하오 총무회담을열고 임시국회소집 문제를 再論했으나 民正黨과 民韓黨이 종래의주장을 되풀이하여 아무런타결을 보지못했다.

이날회담에서 李鍾贊民正黨총무는 議題를확대하여 본회의를 열어줄수는없으며 8월초 國防, 農林, 交通委를 열어 정부측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자고 제의했으며 이에대해 高在淸民韓黨총무는 『본회의를 열지않는이상 상위에 응할수없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여 결말을 보지못했다.

회담이 끝난후 李民正총무는 『금주중 다시 총무들이만나 상임위소집문제를 논의키로했다』고 말했으나 高총무는 『오늘로써 임시국회와 관련된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고 상반된 견해를 말했는데 李東鎬국민당총무는 『民正, 民韓黨이 一步씩 양보, 합의점에 도달하면 국민당은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中央행정기관 지역별로 合同廳舍

정부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지역별로 合同廳舍를마련, 집단화시킬방침이다.

27일총무처의지역단위합동청사5개년계획(81~86년)에 의하면 각지역민의 편의를위해 산재해있는중앙행정기관을 지역별로 한곳에 모이기로 하고 1단계로 光州 全州 大田 淸州 忠州 忠武등6개지역의합동청사신축을위한 垈地2만4천평 확보財源을내년도예산에편성해 줄것을 예산당국에요구했다.

라자이87% 得票압승
이란 大統領선거 開票완료

【테헤란26日=AP聯】모하마드·알리·라자이수상은 지난24일 실시된 이란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총투표수 1천4백만표중 87%인 1천2백 20여만표를 얻어 이란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이란국영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라자이후보가 모두 1천2백22만4천6백5표를 획득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앞서 축출된 바니사드르前대통령이 지난 80년1월 선거에서 획득한 표보다 1백50만표가 더 많은 것이다.

이 방송은 라자이수상과 이번 선거에서 경합한 아바스·세이바니 前농업상등 다른3명의 후보들은 세이바니씨의 경우 총투표수의4%인 55만여표를 획득하는데 그치는등 미미한 지지를 획득했다고전했다.

社会漫評

熱風 81

地平線

인생이 공중에 떠도는 먼지만도 못하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은 엄청난 숫자로 말하고있다. 우주공간 저편에서 온 빛으로 지금까지 망원경에 잡힌 것은 10억년전에 우주를 떠난 것이 최고기록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버클리대학 천문학자인 스핀래드 박사팀이 작년3월에 밝힌 보고서는 빛이 10억년을 달려야되는 거리에 은하계가 적어도 3개있다고 말하고있다.

▼이 망망 우주공간에는 사람보다도 훨씬 머리가 앞선 고등생물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있다. 작년4월 미국·소련·영국등 세계10개국 과학자들이 유엔을 위해 만든 보고서도 그것을 말하고있다. 우리 태양계는 45억년밖에 안됐지만, 우주공간에는 2백억년이나 된 별도 있기때문에 지구의 인간보다 훨씬 앞선 생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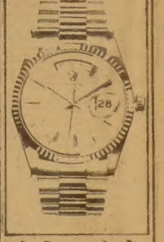
▼말하자면 이런 「우주인」을 봤다는 사람이 미국인 신학자 스트레인지스 박사다. 비행접시라고 불리는 소위「UFO」에 관한 대강연회에 초청받아 서울에 온것이다. 그는 이우주인이 손금도 없고, 각국어에 능통하고, 勝이 사람과 다르며 미국방성에 근무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믿을 수도, 안믿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할수밖에 없을것같다.

▼어쩌면 우주인이 타고 온 비행체일 것이라는 비행접시를 공식적으로는 「미확인 비행체」라는영어의 머리글자를따서 UFO라고 부르고 있다. 서울에서도 작년 10월11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등학생이 UFO사진을 찍은적이 있었다. 趙慶哲박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미공군에 보고된 UFO 2만여건중 1천5백여건이 「비행접시」라는것이다.

▼비행접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에는 미공군에서 UFO조사·연구를 맡았던 노드웨스턴대학 천문학 명예교수 알렌·하이네크, UFO연구기금 의장인 해군의 물리학자 브루스·매커비박사등이 있다. 지금까지 비행접시소동에 콧방귀를 뀌었던 공산권에서도 UFO목격보고가 나오고, 중공에서는 연구기관까지 만들었다고 작년11월 新華社통신이 보도했었다.

▼그러나 비행접시를 비웃는 비판자들도 많다。미국의 로버트·쉐퍼는『UFO가 도깨비같다』고 비꼬고있다。증거를 잡으려는 순간 달아난다는 것이다。몇해전 세상을 떠난 심리학자 칼·융은 모세가 이집트를 빠져나올때 봤다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고있다。그 어느쪽이든 땅위에 사는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곰곰 생각하게 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04
은: 온스당 US 8.42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종합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비둘기사진 식자인쇄소
고급 인쇄를 원하시면 사진식자가 있는 비둘기 인쇄소를 찾으세요.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 493-8894 윤 종 대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6.25
출발일자: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유지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김미영 한국 민속무용 연구소〉
MI YOUNG KIM'S KOREAN FOLK DANCE INSTITUTE
경력:
● 6세부터 부친 김윤학씨 사사
● 제1회 전국국교(이화여중·고 및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 제4회 전국중·고교 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이화여대 주최)
● 배화여중·고 동창회 주최 무용발표회 개최
● 김미영 무용발표회 수회 개최(한국예술극장, 전국)
● 무용연구소경영(서울돈암동 12년간)
● 일본및 유럽순회 공연
● 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 연구소 경영
金美影 孃 舞藝妙境
金美影 그 이름 世界에 빛나리
〈만5세 이상 남·녀 어린이 지도 합니다〉
201 VAN HORNE AVE. #509(Donmill × Finch)
499-5079
※고전무용에 필요한 무대장치및 소도구 제작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CIA、「가다피顚覆」계획

뉴스위크誌보도 케이시局長 이미 承認

下院情報委 거센反撥

白堊館도 관련 議會자금 승인못받아

【뉴욕26日UPI=聯合】윌리엄·케이시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은 가다피 리비아 대통령을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같은 계획은 하원 정보위원회의 거센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지가 26일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CIA소식통들이 지난주 기업거래와 관련된 혐의로 케이시국장에 대한 사임압력이 고조되자 이계획을 누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이 계획이 과거 정보계통에 지식이없는 실업가였던 맥스·휴겔 CIA비밀작전담당부국장에 의해 정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말하고 이 계획의 목표는 가다피 대통령을 궁극적으로 축출하는데 있으나 정보위원회위원들은 이를 그의 암살을 의도한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케이시국장이 암살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정보위원회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보내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스위크는 케이시국장과 백악관위기관리반에 의해 승인된 이계획이 자금확보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내야 할 대규모작전이라고 지적하고 아직까지 의회는 이 자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계획은 가다피 대통령의 지도체제에 도전한 반정부집단을 결성하거나 불평분자들을 동원하여 게릴라활동을 전개하도록하여 계층간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休戰준수다짐하는 아라파트 아라파트 PLO의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PLO는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준수할것』이라고 재다짐하고, 그러나 총성이 멈췄다는 사실이 반드시 평화를 의미하지는않는다고 강조했다.【베이루트25日AP特約=聯合】

"對팔休戰 보강할 필요"

헤이그美國務、베긴에 메시지

【예루살렘26日AP=聯合】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휴전이 와해되기쉬운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기때문에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이스라엘측에 경고한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이같은 경고는 이날 공개된 베긴 이스라엘수상앞으로 된 헤이그 장관의 메시지에 들어있었는데 이는 이스라엘군부및 언론이 베긴수상의 對팔레스타인 휴전조치를 못마땅하게 보고있는 것으로 전해진가운데 나온것이어서 주목을 끌고있다. 이스라엘신문들은 베긴내각이 워싱턴의 강요에 못이겨 對팔레스타인휴전을 수락하게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휴전협정을 위반한 게릴라들의 레바논 기독교민병대거점 공격은 『이스라엘정부에대한 조기경고』라고 강조했다.

"事態終熄위한 조처를"

中東休戰에 對이스라엘强力제제 촉구

蘇 프라우다紙

【모스크바26日AP=聯合】소련은 26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휴전준수결의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행위로 귀결된 레바논사태종식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는 이날 이스라엘이 언제라도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할 태세가 돼있다고 밝힌 이스라엘군장성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휴전이 문제의 핵심을 바꿔 놓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上海에 商談센터

【홍콩26日AP=聯合】중공당국은 해외거주화교및 외국실업인들에게 중공내의 투자및사업활동상의 편의등을 제공하기위해 중공최대항구 산업도시인 上海에 「상담자문센터」를 최근 설치했다고 관영新華社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라자이 이란 새大統領

얼굴

【런던26日AFP=聯合】이란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모하마드·알리·라자이 수상(48)은 일개 수학교사로부터 수상에 뛰어오른 이란 회교강경파지도자이다. 라자이 수상은 2천5백년간의 왕정이후 이란최초의선거에서 이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바니·사드르 前대통령의 뒤를잇게된다.

數學教師출신…IRP支持받는 非黨員

라자이수상이 당선된 주요인은 지난79년 팔레비前王을 전복시킨 회교혁명이후 이란의 집권당으로 등장한 회교공화당(IRP)의 지지를 얻은데 있다. 라자이수상은 IRP당원이 아닌데도 서방문물의 이란지배를 반대하는 경건하고도 이론적인 회교지도자라하여 회교성직자들이 지배적인 IRP의 전폭적인 지지를받았다. 그는 10대에 공군에 입대하여 5년간 복무한후 학업을 계속、가즈빈과 테헤란에서 수학교사생활을 했다. 그후 그는 현정부의 적대세력으로 간주되고있는 마르크스주의회교지하게릴라단체인 무자헤딘·에·할크團에 가입했으며 비밀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됐다. 그후 회교혁명정부문교상에 임명된 라자이수상은 이란의 학교교과과정을 엄격한 회교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주도했으며 그후 회교성직자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수상자리에 올랐다.

韓半島戰雲 파급을 假想

日 對馬島상륙訓鍊 마쳐

【東京27日=聯合】중동분쟁을 계기로 한반도에도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상황을 가정、지난20일부터 실시된 日육·해·공 3군자위대에의한 종합기동훈련이 26일 한국과 인접한 對馬島에 증원부대를 상륙시키는것을 절정으로 27일 1주일간의 훈련일정을 끝냈다. 전반3일간(20~22일)의 도상지휘소 훈련과 후반4일간의 실전기동훈련으로 실시된 3군자위대 합동훈련은 한반도에 심상치않은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는것을 배경으로 작전본부로부터 전자위대에 출동대기명령이 발동되어 北海道에 방위군을 증강하고 쓰가루(津輕)·쓰시마(對馬)·소오야(宗谷)등 3해역에도 급거상륙부대를 파견、해역방위에 나서는것을 주된 훈련으로했다.

波勞組、配給制개선 촉구

食糧부족 극심…첫斷食행진 벌여

【바르샤바26日UPI=聯合】폴란드자유노조는 26일 악화일로에있는 국내 식량부족사태와 관련、정부에 식량배급체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만약 정부가 식량배급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폴란드국내 도시의 자유노조지부들도 이날 일제히 『행동』을 촉구하는 對정부비난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중부루르노시에서는 폴란드 공산정부수립이래 최초의 단식행진이벌어지는등 식량부족을 둘러싼 폴란드의 노동위기가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보이고있다. 북부 그다니스크항에서 열린 자유노조 전국조정위원회는 이날 3일간의 비밀회의를 끝내면서 최근 악화되고있는 국내식량사태에 언급、육류배급량을 오는 10월까지 현수준에서 동결키로한 앞서의 정부와의 협정을 고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만약 정부가 협정을 위배하여 오는 8월1일부터 육류배급량을 20% 감축할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로 맞설것이라고 경고했다.

벨리즈、9월獨立

英 마지막植民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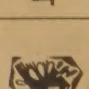
【런던26日AP=聯合】중남미에 남아있는 영국의 마지막식민지가운데 하나인 벨리즈(구영령온두라스)가 오는9월21일 완전독립한다고 26일 英國외무성이 발표했다.

오늘의 역사 〈28일〉

- ▲獨 작곡가 바하 死去 〈1750〉
- ▲제1차대전 발발 〈1914〉
- ▲伊 파시스트黨 해체 〈1943〉
- ▲歐洲석탄·철강공동체 정식발족 〈1952〉
- ▲原子彈의 아버지 오토한 死去 〈1968〉
- ▲司法波動 일어남 〈1971〉
- ▲中共 唐山市에 大地震 1백만명 희생 〈1976〉

메아리

불국사



불국사는 우리나라 고적및 명승 제1호로 지정된 문화재이기도 하다.

현재 경내에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만도 다보탑과 석가탑을 비롯하여 청운교、백운교와 금동비로자나불및 아미타여래좌상등 다수에 이르고 보물도 사리탑과 3층석탑이 있어서 사찰 신도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지에서는 신라 법흥왕 24년 즉 서기540년에 왕모 迎帝夫人의 발원으로 國泰民安을 위해 창건되었다 했고、삼국유사에는 신라의 金大城이 전세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짓고 현세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고 했다.

이렇게 창건시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6세기 전후해서 신라의 김씨왕가가 당시의 국력을 기울여서 창건했던 대표적인 사찰의 하나임에는 어김이 없다.

그런데 사기에 따르면 김대성이 중창할때 전당과 요사가 70여채나 되었고 그 다음에도 여러번의 중창이 있었다고 하나 임진왜란의 병화로 전소된것을 조선시대 영조대왕때 재건함으로써 이미 지난날의 찬란함은 찾아볼수가 없게 되었다한다.

속세의 모든 번뇌와 영욕이 싫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수행에 여념이 없을 일부 스님네들이 요즘 이토록 유서깊은 사찰 경내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사태를 벌였다는 이면에는 속인들이 감히 넘보지못한 그어떤 절실한 까닭이있었을지 모른다.

그런 까닭이야어찌되었든 부처님의 깨우침대로 인자의 존재는 욕망에 바탕을 두었으며 욕망의근원은 물심에 대한 애착에서 생기니 인연따라 변화·유동하는 만물을 달관하여 스스로가 만든 고뇌에서 벗어나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고뇌를 털어버린 자유로운경지에 이르러 열반에 들도록 수행에 전념한다면 그런 시비의 소리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우리 불교전통의 명예를 위해서도 먼저 스님네들의 심사숙고가 있었으면 한다.

王室外交펼칠 老大國의 威容

새각시 다이애너가 찰즈皇太子에 시집가는 날

◇엘리자베드 英國女王의 동생 마거리트 공주의 前남편 스노우든경이 찍은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의 다정한 포즈.【런던24日UPI=聯合】

女王 "경비줄여라"

수출은 새각시 다이애너·스펜서가 찰즈 황태자에게 시집가는날一런던은 세기의 제전이 펼쳐진다. 영국은 오랫동안 손가락을 꼽으며 이날을 기다려왔다. 국민들에겐 밝은 낭만의 꿈을 일깨우고 세계에 대해서는 전통 노대국의 위용을 이미지·업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인플레와 실업에 의한 도시폭동、북아일랜드사태는 내외적으로 영국사회의 어두운면을 대변해왔다. 세계의 관심도와 비긴다면 혼례비용은 뜻밖으로 적다. 40만파운드、우리돈으로 5억1천2백만원 안팎이다. 식장인 성바오로 대사원입구부터 제단까지 깔릴 약1백40m의 붉은 융단、사원내 꽃장식、그리고 행렬준비와 경비경찰관의 초과근무수당이 그 전부다. 그러나 며느리를 맞는 엘리자베드여왕은 혼례비용을 절약하라고 엄명、버킹검궁은 붉은 융단을 재사용할수있도록 특별고안까지 해야했다.

황태자화촉의 序奏는 27일 밤 버킹검 궁전의 대무도회에서 울리기 시작한다. 한국시간으로는 28일 새벽부터 혼례가 카운트다운되는 셈이다. 무도회에는 신랑신부가 될 두사람、엘리자베드여왕부처、세계각국에서 모인 왕실대표와 원수들이 참가한다. 노대국의 화려한 왕조외교가 무도회에서 재현되는것이다. 전야인 28일에는 런던하이드 파크에서 경축콘서트와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황태자가 불꽃에 직접점화한다. 불꽃은 1만5천발、이를 신호로 전국 각지의 봉화가 일제히 영국 밤하늘을 수놓게된다.

각국首腦·王族수백명 參席

費用 5億원·警護員5千명

賀客신변보호 神經

○…런던경찰국은 29일의 찰즈황태자결혼식에 3천명의 정사복경찰을 투입、신랑신부는 물론 왕실가족과 축하객으로 참석한 세계각국지도자들의 신변보호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엘리자베드여왕과 부군 필립公、이날의 주인공 찰즈황태자와 신부 다이애너·스펜서양、그리고 양가 가족들은 이날 4륜오픈마차에 두사람씩 타고 1백만에 가까운 환영인파와 불과 3m간격을 유지하면서 3·5km의 긴 행진을 벌인다. 수백명의 각국 지도자들과 저명인사들 그리고 세계각국에서 온 왕족들은 성 바오로 성당계단에서 결혼행렬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이들 모두가 잠재적인 저격대상이다.

○…런던경찰당국은 이미 결혼행렬이 지나가는 거리양쪽에 정사복경찰관 3천명과 2천2백28명의 무장군인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이가운데 수백명의 사복경찰관은 군중사이에 끼어들어 철저한 경비임무를 펴게된다. 또한 폭발물장치에 대비 하수구에 대한 검색도 실시하며 차출된 명사수들을 행렬이 지나가는 빌딩과 주택가 지붕위에 배치하게된다. 경찰은 12대의 원격조종 TV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든 도로와 환영인파를 샅샅이 뒤질것이며 인근빌딩에 접근하는 모든사람들에대해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안당국은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北아일랜드사태와 관련、에이레공화군(IRA)의 폭탄투척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태자부처는 결혼식에 이어 버킹검궁에서 오찬을 끝낸다음 이날 하오 4시께 마차편으로 워털루역에 도착、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왕실전용열차에 탑승、브로드랜즈로 향한다. 이들이 신혼초야를 맞을 브로드랜드는 18세기에 건축된 2천4백20ha의 대저택으로 79년 에이레공화군(IRA)에 의해 살해된 찰즈의 종조부 마운트배튼의 저택이었으나 현재는 그의 손자 롬지경이 주인.

◇오는29일 찰즈왕자와 결혼하는 다이애너·스펜서양이 26일 윈저 그레이트 파크의 폴로클럽에서 벌어진 국제폴로대회 英國對스페인경기를 관전하다 「부끄럼많은아가씨」라는 별명이 꼭 어울리는 모습으로 영박스주위를 슬쩍 훔쳐보고있다. 이날경기에는 찰즈왕자가 英國팀선수로 뛰었다.【윈저26日AP特約=聯合】

요트로 地中海순회

○…브로드랜드에서 사흘밤을 보낸후 이들 한쌍은 8월1일 엘리자베드여왕전용비행기편으로 지브롤터에 도착、청·백의 왕실색깔로단장된 왕실전용요트 브리타니아號에 승선、생전에 두번다시 없을 지중해순회蜜月여행에 들어간다.

2주일동안 황태자부처를 태우고다닐 브리타니아號는 요트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있는 초대형선박으로 4천9백61t급이다. 퇴역제독을 비롯、해군장교22명、사병2백54명등 승무원수만도 2백70명을 넘는다. 연간 운행경비만해도 총2백15만파운드(약28억원)나 소요되는 브리타니아號는 왕실가족의 특권의 상징이자 反군주주의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어왔다.

○…지중해순회 항해기간중 3척의 군함이 브리타니아號를 호위하게 되지만 찰즈황태자가 평생에 한번뿐인 허니문을 즐길수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의 먼거리에서 뒤따른다고.

브리타니아號가 지중해 英연방국가들에 기착할 항구에 대해서는 왕실은 아무런 시사도 하지않았지만 言論들은 키프로스와 몰타 그리스의 여러섬을 비롯 찰즈황태자의 출생지인 코르푸등을 꼽고있다.

폴로경기 음악 오페라감상 낚시 산보등 찰즈황태자와 유사한취미를 자신의 취미로 내세운 그녀는 찰즈황태자를 16살때 처음 만난것은 그녀의저택인 엘트호프에서 였다고 밝혔다.

다이애너記者회견

"結婚후엔 좋은아내 되겠다"

지금心情 어느新婦나 같아

【런던27日AP=聯合】세기의 결혼식을 눈앞에둔 다이애너·스펜서양은 그동안 대중의 따가운 눈총에 적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그녀의 심정은 『결혼이임박한 어느신부의심정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다이애너양은 27일 英國내 통신·프레스·어소시에이션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집중된 카메라세례에 다소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국민들의열광적인 반응이 큰 보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 분주해질 것이나 개인적인 생활을 가질 기회도 아울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 다이애너양은 자신의 옷은 자신이 직접 고르며 그녀가 약혼전 런던의 아파트에서 방을함께썼던 3명의 절친한 친구들과 헤어지게 돼 아쉽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가 성장한 노르포크를 떠나지 못하고있다고 토로했다.

人工心臟으로 生命연장

플라스틱製…진짜심장 寄贈까지

◇플래스틱製 인공심장。좌·우심실과 심방이 정교한 많은 장치로 연결되어 심장을 구할때까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준다.【AP】

美휴스턴의 덴턴·쿨리박사가 이끄는 3명의 의료진은 최근 뇌에 치명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36세의 네덜란드인에게 인공심장을 이식했다.

지난69년에도 인공심장이식수술에 성공한바있는 쿨리박사는 네덜란드의 중환자의 심장이 멈추었으나 즉시 다른사람의 심장을 구할수 없어 심장이식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인공심장을 우선 환자가슴에 이식했다.

플레스틱제 인공심장은 조그만 펌프가 부착되어 환자가 심장을 기증받을때까지 잠정적인 심장역할을해낸다. 인공심장이 환자의 생명을 얼마나 연장시켜줄지는 확실치 않다.

지난 69년의 경우에는 인공심장이식후 65시간만에 심장기증자가 나타나 심장이식수술을 했으나 35시간만에 폐렴으로 죽었다.

쿨리박사는 인공심장을 달고있는 네덜란드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18~45세사이의 남자심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있다.

인공심장이식을 둘러싸고는 찬반논의가 분분하다. 미국 심장협회는 인공심장이식은 인체실험을 금지한 정부시책의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미국 식량의약국(FDA)은 쿨리박사가 인공심장이식수술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고 말하고있다.

쿨리박사는 응급조치로 인공심장을 이식하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므로 인체실험을 금지한 정부방침의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지난69년 쿨리박사가 수술한 세계최초의 인공심장이식환자가 죽었을때 유가족은 쿨리박사를 배임혐의로걸어 4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敗訴했다.【휴스턴AP=聯合】

史上최초 胎兒手術성공

子宮속서 膀胱불순물除去

美캘리포니아大學의의학자들은 세계최초로 임신부의자궁속에 들어있는 태아에대한 외과수술에 성공、현대의학에 또하나의 개가를올렸음이 26일 뒤늦게 밝혀졌다.

캘리포니아大學 소아과의사인 마이클·해리슨박사가 이끄는 한의학팀은 지난4월 입원중인 로사·스키너부인이 임신한 쌍둥이가운데 하나인 사내아이가 분만예정 1주일을 앞두고 방광장애로 死産될위기에 처해있는 사실을발견하고 장시간의 논의끝에 세계최초의 태아수술을감행하기로 결정、스키너부인에게 局部마취를시킨뒤 스파게티두께만한소형플래스틱튜브를 스키너부인의 복부를통해 자궁으로 주입、태아의 방광에서 불순물을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4월26일 임신 마지막단계에서 실시된 이수술은 특히 스키너부인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기때문에 또다른 태아에게 치명적인위험을 미칠 가능성을 안고 있어 더욱 값진업적으로 평가받고있는데 스키너부인은 그로부터 보름후 예정보다 한달이 빨랐지만 쌍동아를 순산、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우고있다.

태아의 방광장애는 태아4명가운데 3명은 분만즉시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해리슨박사를 비롯한 의학자들은 스키너부인의 태아를 수술하기에 앞서 양과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3년간 해온 태아수술전문가들이다.

해리슨박사는 『태아수술의 개발은 死産이나 무산의 위험에 처해있는 태아를 구해낼수있는 획기적인 술』이라고 지적했다.

또 쌍동아를 무사히 분만한 스키너부인은 『아기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감격해하고 있다.【샌프란시스코UPI=聯合】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 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각종 CABINET책상, ●사무용 학생용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KYOTO JAPANESE RESTAURANT

신장개업, 다양한 일본의 정통음식

뎀뿌라, 스시, 스끼야끼.

예약은 755-3010

영업시간 : 화~금 점심 12~2:30, 저녁 5~10:00

토~일 5~10:00(월요일 휴업)

주 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North of Eglington(오리올플라자내 무료 주차장)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at Simcoe) TORONTO

863-9519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맵짓, 가므에 남아서 위하는 내로 씌임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한국、레슬링서 強勢

柳寅卓연승 美選手와 準決대결

孫甲道는 銅메달 一步前

高鎭源 金鍾奎 3회전에 進出

自由型

夏季유니버시아드

남자排球는 쿠바에져 4強진출 난망

【부쿠레슈티=綜合】 한국남자배구팀은 26일밤(이하 한국시간) 벌어진 제11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8일째 남자 배구 준결승리그 쿠바와의 대전서 신장과 파워의 열세로 3-0으로 패해 1승1패를 기록, 결승리그(4강) 진출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레슬링 자유형 경기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柳寅卓은 우승후보로 지목된 라이트급(68kg) 3회전서 蘇聯의 보리스를 판정(7-3)으로 물리친데 이어 4회전서도 캐나다의 로이드·렌텐을 5분2초만에 폴로 제압하고 4강에진출, 27일 미국의 우렌트룸과 결승진출권을 다투게되었다.

주니어플라이급(48kg)의 孫甲道는 3회전서 소련의 아르사트에게 13-8로판정패, 28일 中共의 카오·펜시와 동메달을 놓고 격돌케되었다. 또한 웰터급(74kg)의 高鎭源은 2회전서 폴란드의 크루렌을 2분6초만에 폴로제압했고 플라이급(52kg)의 金鍾奎도 이집트의에삼에게 기권승, 27일 소련의 클라크·메로와 3회전서대결케되었다.

한편 한국남자농구팀은 터키에 97-93으로 역전승을거둔데이어 日本을 89-75로완파, 하위 리그서 3연승으로 수위를 차지, 9~12위 결정전에 나가게 되었다.

테니스 혼합복식 준결승서 金壽玉 全榮大조는 소련의레오니우크, 마카로바조에 2-1로 역전패, 체코와 동메달을 다투게 되었다.

육상8백m 준결승서 金福柱는 8명중 최하위를 기록, 탈락했다.

한국은 펜싱 사브르단체전서 헝가리에 15-1, 불가리아에 16-0으로 패해 탈락했다.

◇제8일 전적

◆배구 준결리그 B조2차전
쿠바 3 (15-13, 15-11, 15-9) 0 한국
(2승) (1승1패)

◆펜싱
▲사브르단체
불가리아 16-0 한국
헝가리 15-1 한국

◆농구
▲9~16위전
한국 89 (51-42, 38-33) 75 일본
한국 97 (50-43, 47-50) 93 터키

◆레슬링(자유형)
▲48kg급준결승
아르사트(소련) 판정 孫甲道
▲68kg급3회전
柳寅卓 폴 렌텐(캐나다)
▲52kg급2회전
金鍾奎 기권 에삼(이집트)
▲74kg급2회전
高鎭源 폴 크루렌(폴란드)

鳳凰大旗가 기다린다

49팀 強訓현장서 본 올해의 스타는… 〈1〉

○○○○○○○○○○○○

제11회 鳳凰大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오는8월6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된다。전국 고교선수들에게 서울운동장 잔디그라운드를 밟을기회를 마련해주는 鳳凰大旗대회는 해마다 풍성한 화제와 신진선수들의 묘기로 한여름의 청량제가 되어왔다。지난해 대회는 宣銅烈(광주일고)의 노히트노런, 李鍾와(광주상)의 사이클·히트, 金太業(광주상)의 3게임연속홈런, 崔榮祖(광주상)의 1게임 5도루등 스타들의 진기록으로 장식되었다。81년대회를 누빌 예비스타들은 누구일까。11번째 草綠 鳳凰大旗의 주인공은 누가 될것인가。불볕더위속에서 必勝을 다지는 49개참가팀 강훈현장을 돌아본다。【편집자註】

○○○○○○○○○○○○

怪力의 투수金正洙(眞興고) 강타자 崔盛浩(光州一高)가 湖南돌풍의 核

72년 群山商高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끝에 처음 전국정상에 올라 선풍을 일으킨이래 湖南야구는 꾸준히 성장, 국내고교야구의 판도를 뒤흔드는 돌풍으로 위세를 떨쳐왔다。지난해의 光州一高, 光州商高에 이어 금년에는 光州眞興高가 湖南돌풍의 핵으로 다른지역의 강호들을 위협하고있다。

시즌 첫대회인 대통령盃 대회서 유력한 우승후보 善隣商高를 2-0으로 다운시켰던 眞興高의 괴력은 왼손잡이 에이스 金正洙(18·3년)로부터 비롯된것이다。인코스로 낮게파고드는 金의 날카로운 속구는 어떤강타자에게도 공포의 대상。善隣商을 6안타 4포볼4삼진으로 완봉했던金正洙는『이제야정상컨디션을 찾았다。鳳凰大旗때는 대통령盃때보다 훨씬 빠르고 좋은볼을 던져보이겠다』고 호언한다。

眞興高는 善隣商을 깨뜨린 큰 전과에 어울리지 않게 대통령盃2회전서 大邱高에 7-1로 참패했으며 청룡기예선탈락의 불운이 겹쳐 黃鎭說감독이 사퇴하는 진통을 겪었다。그러나 金正洙에대한 평가만은 여전해서 전국명문대학감독들이 문턱이 닳도록光州眞興高를 드나들었다는게 眞興高의 새감독 姜義遠씨의 귀띔이다。

대통령盃 2회전때 大邱高에 6회동안 7포볼을 허용, 자멸했던 金正洙는 그동안 러닝, 체조, 투구의꾸준한 훈련으로 볼·컨트롤에 자신을되찾았으며 구위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어느팀이건 金正洙에게는 혼이 날것』이라는게 光州시내 다른팀 관계자들의 예상이다。시즌초반 하루 50회의 투구로 자신만만했던 金正洙는 최근 하루 2백회이상의 투구로 자신을 단련하고있다。

1m83, 75kg의 훌륭한 체격을가진 金은 1백30m거리의 교실유리창을깨뜨릴만큼 대단한 장타력을 가지고있어 4번타자를 맡고있다。

姜豊遠·金敬鎬(眞興)강타선

眞興高는 그외에도 발빠르고 선구안좋은 선두타자 姜豊遠(3년·중견수) 일발장타에 철벽수비를 자랑하는 金敬鎬(3년·유격수) 등 창단7년만에 최강의 전력을 구축, 草綠鳳凰大旗를 노리고있다。

光州一高는 技巧派투수 車東哲자랑

光州一高는 언제나 고른기량의 모범선수들을 길러내는 명문。姜晩植·李相潤·宣銅烈에 이어 금년에는 다양한 구질의볼로 두뇌피칭을 하는 右腕투수 車東哲(3년)을 다듬고 있다。지난해에도 강속구의 宣銅烈을뒷받침, 좋은 컨트롤을 보였던 車東哲은 스피드보다는 교묘한 볼 배합으로 상대타자들을 능숙하게 처리해 기교파투수로 주목을 받고있다。그러나宣과함께 마운드를 지킬때보다 정신적부담이커 다소 소심한데다 체력이 달려 5·6회 정도의 투구가 한계。

光州一高를 떠받들고있는 또하나의 기둥은 찬스에 강한 타자 崔盛浩(3년·중견수)。1학년때부터 선배들을 제치고 베스트9에 들었으며 선구안이 좋아 3할5푼대의 타력을 유지하고있다。지난번 靑龍旗대회 培材高·慶南高와의 연속2게임에서 2점홈런을 날려 光州一高를 4強으로 이끌어 올렸다。

崔盛浩는 지난18일 무등경기장서 동문선배팀과의 친선경기도중 장타를 잡으려다가 펜스에 부딪쳐 머리를 다쳤으나鳳凰大旗서큰활약이기대된다。

光州一高는 沈相守·姜晩植·車榮華·李相潤·姜鎭遠·許世煥등 쟁쟁한 실업·대학현역선수들로구성된 선배팀과 선전, 6-5로 졌으나 시즌초반보다 월등 향상된 전력을 보여 趙昌秀감독을 기쁘게했다。

光州商은 長打力의 포수 張彩根이 큰밑천

지난해 金太業·李順喆·崔榮祖등 고교일급스타들을 갖고서도 불운하게 1회의 준우승에 그쳤던 光州商高는 금년에는 스타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다。그러나 게임·리더인 포수 張彩根(3년)만은 국내 어느팀 포수에게도 뒤지지않는다는게 신임 崔柱鉉감독의 자랑이다。朴魯國감독에 이어 금년2월 어려운 자리를떠맡은 崔감독은 1m83, 80kg의 대형포수張彩根의 대성을 장담한다。투수리드가좋고 강한어깨를가져2루스틸은절대불허。

타격도 뛰어나 금년 공식대회서만 5개의 홈런을 기록했다。光州商팀관계자들은 청소년대표선발에서 張彩根이 빠진것은 큰 잘못이라고흥분했다。【方錫珣기자】

◇鳳凰大旗를 향해 49개 참가팀들은 불볕더위속에서도 강도높은 훈련으로 기량을 다지고있다。【徐鐘道기자찍음】

◇眞興 金正洙

◇光州一高 車東哲

◇眞興 姜豊遠

◇光州商高 張彩根

黃善愛·金練子 콤비 복식 準決勝 진출

월드게임 배드민턴

【샌타클래라=聯合】 제1회월드게임 배드민턴 경기에 출전한 한국의 黃善愛·金練子조는 27일하오(이하 한국시간) 열린 여자복식 준준결승에서 日本의 요네꾸라·인도네시아의 이멜다 혼합조에 2-1로 승리,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金練子는 여자단식 준준결승전에서 작년도 세계여자챔피언인 스웨덴의 쾨텐에 2-1로패해 아깝게 탈락했다。

한국의 黃·金조는 요네꾸라·이멜다조를 맞아 첫세트를 15-4로 이겼으나 제2세트서 방심, 노련한 요네꾸라에게 연달아 강타를 허용하여 6-3까지 리드하다 오히려 14-18로 역전패했다。

3세트서는 黃이 후위에서 강한 스매싱으로 포문을열고 金의 네트플레이로 15-4로 승리했다。

여자단식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받고 있는 黃善愛는 28일상오 스위스의 블루어와 단식 준준결승을 벌인다。

黃善愛와 金練子는 26일 벌어진 여자단식 첫경기에서 각각 승리, 8강에 진출했다。

세계톱랭커 21명이 출전한 여자단식에서 금년도 全英오픈선수권대회 챔피언이며 이대회서 1번시드를 받은 黃은 나이지리아의 에드워드를 11-0、11-1로 가볍게 요리, 15분만에 경기를 끝냈다。

◇제3일전적
◆배드민턴
▲여자단식준준결승
쾨텐(스웨덴) 2 (11-9, 11-12, 11-4) 1 金練子
▲동복식
黃善愛·金練子 2 (15-4, 14-18, 15-4) 1 요네꾸라(일본)·이멜다(인도네시아)

◇제2일전적(26일)
▲여자단식1회전
黃善愛 2 (11-1, 11-0) 0 에드워드(나이지리아)
金練子 2 (11-1, 12-11) 0 카톤(미국)

黃忠載 8회KO로방어

OPBF웰터級 타이틀戰

프로복싱 동양태평양 권투연맹(OPBF) 웰터급 챔피언 黃忠載는 26일밤 문화체육관서 벌어진 타이틀8차방어전서 필리핀의도전자 다닐로·림파한(22·동급8위)를 오른쪽 어퍼컷 결정타로 8회2분17초만에 KO시켜 16연승(13KO)을 기록했다。

핀토르 8회KO勝

WBC밴텀

【라스베이가스26日AP=聯合】 WBC(세계권투평의회) 밴텀급챔피언 루페·핀토르(멕시코)는 26일밤 美라스베이가스에서 벌어진 타이틀전에서 도전자인 베네수엘라의호비토·렌기포(24)를 8회1분21초만에 KO로 제압하고 6차방어에 성공했다。

핀토르는 4회에 렌기포의 무쇠같은 좌우연타에밀려 왼쪽눈이 찢기는등 고전했으나 8회에 들어 강력한 왼쪽 스트레이트로 렌기포를 그로기상태에 몰아넣자 1분21초만에 레프리가 경기를 중단시켜 KO승했다。

챈들러 7回KO勝

【아틀랜티시티(뉴저지州)25日AP=聯合】 WBA밴텀급챔피언인 미국의 제프·챈들러는 25일 美뉴저지州아틀랜티시티체육관에서 벌어진 타이틀전에서 도전자인 푸에르토리코의 율리안·솔리스에 7회KO승을 거두고 타이틀 3차방어에 성공했다。

작년11월 솔리스로부터 타이틀을 쟁취한 챈들러는 이날 5회까지 도전자에 고전했으나 6회들어 도전자를로프로 몰아넣고 좌우콤비블로를 안면에 난타, 그로기상태로 몰고간뒤 7회들어서도레프트·잽과 라이트·훅을 도전자의 얼굴에 작렬시켜 2분58초만에 KO승을거두었다。

신 의 상 사
SPECIAL SALE !

기간 : 8 월 1 ~ 8 월15일1981년

품 목

〈초코렐 바〉

		REG.	SALE
● COFFEE CRISP	BAR 36s	10.89	8.99
● AERO	BAR 36s	10.89	8.99
● SMARTIES	BAR 36s	10.89	8.99
● KIT KAT	BAR 36s	10.89	8.99
● ROWNTREE THICK BAR		9.99	8.99
● LAURA SECORD MINT BAR 36s		10.89	8.99
● WILSON PRODUCT POP		6.29	5.79
● CANADA DRY PRODUCT POP		6.29	5.79
● NESTEA ICE TEA		6.39	5.99
● LOLA		4.19	3.99

GROCERY BAG

# ½	2.85
# 1	3.35
# 2	3.75
# 3	4.35
# 5	5.65
# 6	6.09
# 7	6.55
# 8	6.99
# 9	7.85
# 12	9.69
# 14	10.55
# 20	12.45

# 9 SAC	17.95
# 11SAC	25.89

NOTION BAG

4 × 6 (1000)	4.09
5 × 7½ (1000)	5.15
6 × 9 (1000)	6.99
7 × 10 (1000)	8.99
9 × 12 (1000)	13.05
11 × 14 (1000)	18.89

REF. 상기 대매출은 현 재고량에 한함

주식회사 신의상사

SINCERE TRADING CO.LTD

116 TYCOS DR. TORONTO, ONT. TEL : 781-6669, 6660, 6012

犯法者 해외逃避길 봉쇄

巨額不渡 出國막은뒤 수사
外貨도피·마약犯·就業사기 嚴斷

대검은 27일 전부위 국헌의 해외진출확대정책에 역행하는 해외취업사기, 범법자출국등 「해외진출확대정책악용사범」을 색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이번지시는 정부의 문호개방정책이 오는8월1일부터 전반시행될경우 이를 역이용할 악질사범들이 발생할것을 우려, 명랑한 해외진출풍토를 적극적으로 조성키 위한것이다.

검찰의 집중단속대상 범죄는 ▲해외취업사기 ▲외화도피 ▲마약·히로뽕밀조판매 ▲범법자의 해외도피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잠입 ▲북괴등불순세력의 자금을 이용한 활동등이다.

대검은 이날 각지검에 전담반을편성, 이같은 범죄를 집중단속토록 지시하는 한편 미군수사기관, 인터폴(국제형사기구)및 외국의 수사·정보기관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지속적 단속을펼 방침이라고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유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기획부등 관계기관과 협조, 소양교육을실시, 이들이 불순분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단기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귀국때 학습용품이외에는 일체의 물품을 반입치 못하도록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판이계속중이거나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가운데 해외도피의 우려가 있는자는 범죄별로 리스트를작성, 출국금지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거액의 부도수표에 대한 고소·고발및 진정이 있을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면 일단 출국금지조치를 취한후 지체없이 수사키로 했다.

대검집계에의하면 해외취업사기범은 지난한해동안 2백25명이 적발됐는데 올해는 6월30일 현재 3백6명이나 적발됐고, 외화도피사범도 80년 61명에 미화64만달러, 일화5천1백만엔이었던 것이 올상반기중에 16명에 미화56만달러, 일화 2천7백만엔에 달하고 있다.

LA서 한국美術展
내년 修交百年기념

한·미수교 1백주년기념한국미술품전시회가 82년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 지난18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李光杓문공부장관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박물관장 파월씨와 만나 이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수교1백주년기념 미술전시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한국미술5천년전순회전시에 로스앤젤레스가 제외되어 미서부지역 미술관계자들이 개최를 희망해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선보일 미술품은 현재 워싱턴DC스미드소니언박물관에서 마지막 순회전시를 하고 있는 한국미술5천년전에 내놓은 국보 3백50여점중 일부와 국내에있는 일부의 작품이 포함되는것으로 전해졌다. 전시기간은1년내지2년.

子女는 老後의 행복과무관
白人이 黑人보다不滿度 커
美國서 老人여론조사

이 대체로 더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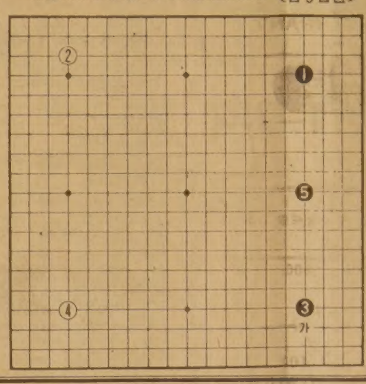
이조사결과를 분석한 테사스大의 노발·D·글렌교수는 자녀를 갖는것이 행복감을 안겨주는데는 별영향이 없으며 이는 자녀의 수와도 관계가 없는것같다고 말했다.

이조사에 따르면 어머니보다 ... 인들인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교육을받은 아버지들일수록 그들의 직무수행중 자녀에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인것 같다. 이와는 반대로 흑인아버지들은 백인아버지에비해 만족도가 높았는데 연구자들은그 뚜렷한이유를 밝혀낼수 없었다. 【딸】

제12기 名人戰 挑战5番棋

第4局 第1譜 1~5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李군, 이번에도 자네한테 매우 섭섭하게 됐네. 그토록 名人戰도전대국을 단몇분간만이라도 직접보고 싶어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바둑은 「浦項製鐵」바둑부의 초청을받고가서 두게 되었거든. 그러니 아무리 뭐라해도 거기까지 데려갈수야 있겠나.

도전대국의 지방순회는 아마 名人戰만의 특색일거야. 이제까지 大田, 大邱, 西歸浦에서도 역시 曺·徐의 대결이 인기리에 연출되었고 이제는 또 浦項일세. 그만큼 名人戰의 매력에 만천하가 매료된 모양이지.

浦鐵은 누구나 잘알고 있듯이 국가기간산업의 심장부. 만5천명 종업원중에 바둑부회원이 꼭1천5백명. 웬만한 소도시의 바둑인구에 해당되니 한말로해서 굉장한 성황이지. 그바둑부가 名人戰을 유치한 열파성의에는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네.

黑, 趣向의 3連星

우선, 귀빈접대용으로 녹지대 아늑한산중에 위치한 별장식호텔 「青松臺」의 특별대국실은 갈데없는 「爛柯之仙境」. 자네또래 하수바둑도 여기와서 두면 한두점 세어질것 같더군.

李군. 서두가 너무 길어졌네. 그러면 성급한 자네를 위해 서둘러 바둑을 보아가세.

약7치높이 바둑판을 중간에두고 앉은뱅이의자에 비슷이 기대서 때를 기다리던 兩雄. 상오9시40분에 도전자는 黑1을, 우상화점에 힘차게 두었네. 그리고 白2쪽은 보지도않고 이내 黑3. 나는 3을 「가」자리에 두어 또그중공식을 시도할것으로 예측했었지. 그러나 이수에 8분을 소비한것을 보니 이전 순간적 취향? 도전자의 3연성은 희한한일인 만큼 왠지 이상한느낌(일종의경악)이 들어 진장되었다네. 【一凡】

나의 이력서

〈題字·윤치영〉

윤치영 ⑤

尹氏兄弟들

외교관·醫師등 개화기先覺者많아
둘째형님 장남은 尹潽善前大統領

伯父(尹雄烈)는 아래로 세아들을 두었다. 나의 從형제들인 致昊, 致旺, 致昌 3형제가 그들이다.

그중 민족적 선각자로 우뚝 솟았던 佐翁 尹致昊에 대해선 별도로 얘기할까 한다. 비록 家系로는 그가 나의 從兄이지만 그는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大人이요, 나에겐 스승과도 같은 畏敬의 존재다.

佐翁은 슬하에 永善, 光善, 瑋善, 琪善, 珽善 5형제와 딸 일곱을 두었다.

장남(永善)은 미국유학을 하고 농림장관과 YMCA총무를 역임했다. 조카이지만 나이는 나보다 두살위다.

차남 光善은 나하고 동갑나기로 1929년 일본 京都에서 열린 제3회 汎태평양회의에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당시 대표단은 尹致昊, 宋鎭禹, 白寬洙, 金佑枰, 俞億兼, 金活蘭등이었다.

3남瑋善은 외교관으로 駐日대표부서기관과 샌프란시스코領事를 지냈다. 4남 琪善은 渡美, 미국樂壇에서 저명한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렸다.

둘째 從兄 致旺씨는 京都帝大와 영국유학을한 의학박사로 軍醫監이 돼 육군소장, 제2관구사령관을 지냈다. 致旺씨는 의학을 공부했으나 부친의 무관기질을 이어받은셈이다.

세째인 致昌은 부친을 닮아 외교관으로 진출, 駐英공사, 駐터키전권대사를 지냈다.

나의 부친(英烈)은 더 많은 자손을 두었다. 致昨, 致昭, 致晟, 致昕, 致明, 다섯형님과 막내인 나, 그리고 누님이 두분이다.

맏형님(致昨)은 高宗己巳년생(1864년)으로 대한제국의 한무국장을 지내다 韓日合방으로 물러났다. 致昨형님은 甲申政變때 朴泳孝, 洪英植, 徐光範등과 함께 일본에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온뒤 개혁사상의 실천에 몰두했다. 형제지만 나와는 29살의 차이가있어 부모이자 스승과같은 분이다.

내가 철부지때는 물론 학창시절, 그리고 사회에 나온뒤에도 격려와 충고와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6·25나기전해에 80세로 돌아가셨다. 아래로 5남3녀를 두었는데 만아들이 서울대총장, 원자력병원장을 지낸 병리학의 권위자 尹日善박사다. 나에겐 2세연상의 조카다. 致昨형님의 家系에선 아들, 손자...

◇67년전 아버님回甲때(1914년)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가운데줄에 朝服을 한 부모님을 중심으로 前列左로부터 筆者와 致昕 致昭 致晟 致明 형님. 後列左로부터 尹潽善씨부인 筆者의妻 큰누님 淑...

둘째형님(致昭)은 中樞院議官을 지낸 從2品嘉善大夫로 해방전해에 돌아가셨다. 아래로 6남3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바로 제2공화국의 대통령을지낸 海葦 尹潽善. 나보다 한살 위인 조카다. 차남인 浚善은 乙巳五條約의 폐기를 상소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한 高宗때 의정 忠正公 趙秉世의 외손녀사위다. 3남인 李範公의 매부이며 경기도지사를 지낸 源善이다.

세째형님(致晟)은 일본육사를 나온뒤 육군騎兵副領을 지냈다. 그는 金佐鎭, 李甲, 柳東悅, 盧伯麟등 장군들과 함께 高宗황제의 侍從武官(종2품)을 지냈고 또, 이들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로 각별한 관계를 가졌다. 致晟형님은 4남4녀를 두었다.

네째형님(致昕)은 舊韓末에 隨軍正衛를 지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 대에 이르러 많은의학자와 군장교가 나왔다.

둘째형님의 5남인 ... 면 중대장급이다. 致明형님은 슬하에 자녀가 없어 둘째형님의 澤善을 양자로 맞았다. 澤善은 5남2녀중 막내딸을 閔商植씨아들에게 시집보내 그와 사돈간이 됐다. 나보다 13살이 나위인 다섯째형님(致明)은 舊韓末 主事를 지낸분으로 외아들 裕善은 국립의료원장 漢陽大의대학장을 지낸 의학자이다.

누님 두분중 큰누님(尹?淑)은 6·7년전에 세상을 떠났고 교회의 장로를 지낸 둘째누님(尹貞淑)은 재작년92세로 他界했다. 나는 막내인데다 형님이나 누님들과 나이차이가 커서 이들로부터 많은 귀여움을 받고자랐다. 형님들은 한결같이 어린아우를 지도하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특히 형님들이 나라가 기우는것을 걱정하면서 開國方略을 논의하는것을 어렸을때부터 들어왔기때문인지 자연히 나의 생각과 자세도 이분들을 닮게된것이다. 예부터 사람들은 우리집안을 大家라고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우리 집안은 長壽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60대에 저세상으로 가면 그건 「夭折」이 된다.

나도 이따금 장수의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받지만 그 말은 우리집안에선 「失禮」에 가깝다. 우리집안이 비교적 장수를 누리는 것은 好衣好食만이 아니다. 내생각으로는 아마도 自手成家한 아버지의 강인한 武骨기질이 뿌리를 내린 陰德이라고 본다.

주간女性

流星의 賦 〈142〉

亡兆의 日月 ㉘

李炳注 作
李友範 畫

송응개의 상소는 어떤 의미로는 중요한 역사적문헌이기 때문에 장황을 무릅쓰고 계속 다음에 옮겨본다.

『…이이는 밖으로 조정설(調整說)을 내세우면서 실은 모함을 피한 것으로, 처음에는 의겸과 효원이 두 사람 다 그르다는 설을 창도하다가 나중엔 의겸을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변명하여 별로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해놓고, 끝에 가선 정철이 깨끗하다며 의겸과 아주 다르다고 했읍니다. 그러니 그의 속셈은 뻔히 알수 있지 않겠읍니까. 이이는 향리에 있을 때에도 염치(廉恥)로서 몸을 닦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고을에서 뇌물이 그집에 모였다는 사실로서 알수가 있읍니다. 그는 또한 바다의 이익과 관선(官船)의 세금을 독차지 하는등 이(利)를 탐하기에 급급했읍니다. 옛 서울의 관청 건물을 남의 이름으로 봉하 받기도 했고, 천지 봉흔(叙知寒訢)이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강탈하기도 했읍니다. 그의 형이 봉흔의 종을 타살한 사건이 있는데 이이는 관청에 고하지 않았읍니다. 대사간이 되어 부임할 땐 지나는 고을에서 양곡 백석을 받아 본집으로 실어보낸 사실이 있어 그 말이 원근에 전파되었어 침 뱉고 조소하는 말이 길에 찼었읍니다. 그런데도 박순은 그를 극구 칭찬하여 전하를 속였으니 참으로 그 꿋꿋을 측량할 수가 없음니다…』

이상에 적힌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꾸며댔다는 식자들의 평이 옳을 것 같다. 어느 편자는 송응개가 임금으로 하여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 당시는 동인의 천지라서 얼마든지 거짓 증거를 세울 수도 있어, 그 사실 여부를 두고 왈가왈부하게만 만들면 뻘밭(泥田)으로 이를 끌어들여 망신을 시킬 수 있다는 저의(底意)였다는 것이다.

송응개의 상소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이이는 시기하고 해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하늘을 속이고 사심을 행사하여 크고 작은 공무에 파를 부려선 국무를 망쳤는지 반년에 천망이 배설에게 미치고, 이조판서로 있은지 1년에 벼슬길을 탁란(濁亂)케 했으니 참으로 매국(賣國)의 간신(奸臣)입니다. …일찍이 이이에게 은혜나 원망이 없었으며 또한 그가 신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했는데 지금 박순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까닭은 이가 신이 박순을 탄핵하려한다는 말을 듣는 때문에 그런계교를 꾸민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성혼(成渾)은 박순등이 천거, 찬양하고 있는 사람인데 심의겸과는 대대로 친교가 두터운 사이입니다. 또 박순과는 매우 친하며 이이와는 정이 골육(骨肉)보다도 더합니다. 혼은 다만 이 세사람이 있는줄만 알뿐, 공론(公論)이 있는줄 모릅니다. 그는 박순, 이이의 말이라고 하면 수화도 불사할 사람입니다. 성혼은 전번 상소 중에 재상들을 일일이 비난하여 유속(流俗)이라고 하면서 국사를 믿음만 한 사람에게 맡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박순과 이이를 의중(意中)에 두고 한 말입니다. 혼은 산야의 선비를 자처하고 당파를 지을 생각만을 하고 감히 삼사를 상앙(商鞅)·윤새(尹穡)과 같은 간신에 비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파만 눈에 있고 전하가 계시는 것을 알지못합니다…』

모든 좋이 와서 生 〈159〉

그림자놀이 ⑱

趙善作 作
禹慶熙 畫

그가 무어라고 말하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그것도 아주 여러번 되풀이 말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은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오랜시간에 걸쳐 서서히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이봐, 민우는 어떡하고 왔어?』

내가 분명히 들은 그의 첫마디는 그런 것이었다.

말끝에 그는 웃하고 좀처럼 깨어나지 않는 아내에 대해 격심한 불평까지 토해냈다. 그는 열예 나를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내로 착각하고 있었다. 민우라는 이름은 아마 그의 아들이고.

그의 음성은 아직도 잠결이었다. 잠결에도 그가 여러차례 내어깨를 흔들어 깨우쳤다. 그가 먼저 잠에서 깨고 옆에 누운 나를 아내로 착각하고 흔들어 깨우리라고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때문에 뜻밖의 질문에 잠에서 깨어난 나는 매우 당황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가 흔들어 깨우는대로 벌떡 일어나 그것이 나인것을 확인시키지 않은것만은 퍽 다행이었다.

잠자코 나는 그의 다음 행위를 기다렸다. 아내로 착각된 처지로도 좋았다. 잠들기전에는 그가 나를 건드려주기 바랐었고, 이제는 아내로 착각된채 건드림을 당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것이다. 아무도 일어나기전에 그가 나를 확인하는 사태만은 기도하듯이 바랐다.

그는 얼마동안 잠자코 있었다. 다시 잠든게 아닐까 싶을만큼 그 시간은 퍽 길고 지리했다.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고 내가 머뭇거리면서 ...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딘가 닿아났던 개의 손을 찾아내어 내 가슴에 올려놓았다. 그의 용기를 한쪽씩 싸쥐었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의 손을 제지했는데, 처음은 물론 반사적인 행동이었지만 곧 나는 그의 아내의 그것과 내 것의 차이에 대해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예민하지 못한 남자라도 그런 것쯤은 금방 눈치챌 것이라는 생각이 나에게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한사코 그의 손에 매달린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의 손에 점령당하고나서 가슴으로부터 그의 두 손을 떼어내기는 힘든 일이었다. 한동안 그의 손과 싸우던 나는 마침내 체념한 듯 슬그머니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선고(宣告)를 기다리는 피의자처럼 그의 판정을 기다렸다. 이건 아내가 아닌데, 당신 누구야 라고 말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는 잠깐동안 잠자코 있었다.

『아니, 이 여자 왜이래?』

무리가 드러난 그의 젊은 몸이 내 쪽으로 쓸렸다. 나는 그의 말끝을 읽었다. 그의 웃음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귀를 잠에서 덜 깬 척 가려린 신음을 냈다. 자연스럽게 그의 상체를 안았다.

생각하는 동안 그가 다시 내어깨를 흔들었다.

『이봐, 이봐』

이번에는 잠든척하고만 있을수가 없었다. 전보다 더 요란스럽게 어깨를 흔들기도 했지만 그는 부시럭거리며 상체를 비스듬히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척 ... 을 찌르며 그가 환성(歡聲)을 수 있었다. 그의 아내의 버릇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는 기꺼운 의구심 반으로 말한 것이리라. 나는 어떻게 할까 잠깐 망설였다. 그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려다가 도리어 의구심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구독신청은 533-2361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종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오전10시30분~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30 오후 2:00 / 영어설교 오후 1:?? 금요저녁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8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9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한진	주일오후 2:00 /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894
박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241-2544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925-852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82
서머나감리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염	주일 낮12:3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3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8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찰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용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생명의전화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 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8864 마을의양식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illegible]	성경공부 2:30 예배 3:00 /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 - 30 달러
☎ : 532-3637 미스타 계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입주하셔서 애들(2명) 봐주실분
가게 : 1-723-8632(오후5시까지)
집 : 1-571-0725(오후5시이후)
(콜렉·컬로 전화하십시요) MRS. 홍

룸·메이트 구함 : 여성에 한함
베더스트×듀폰
☎ : 531-5200 미스. 유(오후6시이후 연락)

입주하셔서 애기 돌 봐 주실분
☎ : 425-6216
미세스 전

풀타임으로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할 신체건강한 사람 구함
☎ : 690-6572

경험있는 재봉사 & 미싱기술자 구함 :
냉방장치및 식당 구비되어 있음
CO-ORDINATION DRESS LIMITED.
49 SPADINA AVE. 4th FLOOR
☎ : 367-1414

급 구
웨이트레스 약간명 모집 628 BLOOR ST. W.
☎ : 536-0290
한 국 관

①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우대 좋은장소
1000마리당 $35
②여름철 낚시미끼용 미모사, 지렁이 거머리등 세일.
LIGHTS밧데리
A & A METRO BAIT SHOP
630 QUEEN ST. E. (Queen × Broadview)
☎ : 463-4997

VENDING TECHNICIAN
Repair & maintain all types of Vending equipment, food service equipment etc.
Ability to read & understand electrical diagram essential.
Car necessary.
5years practical experience or equivalent in the field.
CNIB
☎ : 486-2570

스토아 헬퍼 구함
●경험있는 스토아 캐쉬어 구함
●과일및 뒷일 해주실 분으로
VAN트럭이나 대형 왜건 가지신분 구함.
월수입 $1500.
☎ : 624-5817

PHOTO SHOP에서 일하실 풀타임 구함
REXDALE지역
☎ : 486-6455

캐네디언 식당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미혼여성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 : 362-3170 미스타 또는 미세스 리

일본식당 부엌에서 일하실분 구함
(오후3시~5시 사이)
☎ : 924-9501 459 CHURCH ST.
MICHI JAPANESE RESTAURANT

매매및 양도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500, 권리금 3만3천
☎ : 423-9899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타운하우스 매매 : 4 베드룸, 가격 : ₩62,500,
(DON MILLS × FINCH)
☎ : 491-3825, 27 SLENDER FERNWAY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 1-579-4507(WHITBY)

이주관계로 야마하 피아노급매 :
(3년사용) MRS. 서
☎ : 635-6273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FIRE PIT햄버거 식당
주매상 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렌트 천7백불 현찰13만불 요함. 순이익8천불
☎ : 1-705-748-9722 피터보로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아파트단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리스 5년
☎ : 921-0034, 783-6464(오전10시~오후6시)

GROCERY STORE매매 :
토론토서 160km서북방에 있는 타운. STORE 2000sq. ft.
2층에 방7개, 연매상 $20만, 요구액 $10만(건물포함)
1주일 57시간 개점(일요일 휴점)
☎ : 1-519-327-8368 MR. CHAE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성업중인 가게급매 : 주매상 $5000, 리스5년+5년 옵션, 렌트 $400, 가격 $27000+스탁
☎ : 766-1990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가게급매 : 주매상 $4000~$4500보장, 렌트 월$600 (1 베드룸 포함), 리스2년+4년 옵션, 가장 적당한 오퍼자에게 양도코자 함. ☎ : 531-1067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 × 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브람리 하드웨어 비즈네스 매매
크기 : 1800sq. ft. 리스 : 긴 기간 다운페이먼트 : $10,000, 장소 : 우수함.
주위에 경쟁할 가게 없고 새집들이 매일 들어서는 지역
연락처 : 630-5353 FRANK PERRONE
BELSTAR REALITY LTD.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검 부 원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휴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타일●하드우드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439-6277 박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824(B), 226-5430(R) 변 달 원

기 타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PICTURE FRAME WAREHOUSES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Tel.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코스모스
숙녀복(SIZE 5-16)
아동복(신생아-16)
항상 저렴한 가격
월~토(오전10시~7시) 일(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 534-2003

Can-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사무실 렌트

가게렌트 : 부촌안에 있는 프라자 BURN KING, BAKERY DELICATESSEN 또는 COIN LAUNDRY 좋은 장소임 1600~2600 sq. ft. (싼렌트)
531 WEDGEWOOD DR. BURLINGTON
☎ : 844-3151, 844-0121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 連載漫畫

"이 비용계산 영수증 좀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사장님?"
"고객하고 점심을 했죠"
"자네 사규를 안지키고 있군, 대그우드"
"내게 소화불량이 생길 기회조차 안준 그런 식사는 난 지불못해"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張吉山 (1618)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78)

집기가 말하였다.
『우리 글을 배운 자들의 생각은 늘 존왕(尊王)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매번 이 모여 대의와 명분을 세울적에도 정(政)을 그 지식으로 삼아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난(亂)이 입국에까지 이르는 데는 위의 두 생각이 없어져야 할 것이오. 처음에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백성이 정(政)에 대한 무슨 지식이나 앞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일에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앞선 정(政)이올시다. 합하하여 원성의 대상이 된 자를 징치하고, 백성들의 살아가려는 생업과 이익에 해를 끼친 제도나 관부에 타격을 주어, 도와 덕을 회복하는 것이외다. 이를테면 흉년에 부정한 관리를 잡아내어 저자에 내놓아 술에 찌던고 혜는 통치술의 하나이지요. 선비들이 여럿에 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나, 늘상 한층에 지나지 못하는 것은 포부와 경륜은 태산 같고, 그 세(勢)는 저희들 몫에만 그쳐 실로 지푸라기와 같소. 향리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중지에 의하여 파가의 참고를 부수고 곡식을 나누어 먹는 일을 주동한 자 보다도 힘이 없는 것이지요. 먹서품이라는 상납의 풍습이 있고, 한 마을에서 누가 보더라도 패악한 짓을 저지른 자를 마을 사람들이 판결하여 멍석에 말아 징치하고 몰아내는 것이오. 그것은 저의 하늘의 뜻이므로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소이다. 천인공노(天人共怒)가 바로 이런 일의 원천이고 그분함을 풀어주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가장 실한 정(政)이외다. 고금을 돌아보아 이러한 공분에 움직이지 않는 민심이 없소. 외와두 제는 공분을 모은 것에 게을리 하셨으니, 아주 특별한 일이 되고 말았지요. 어느 때는 죄없이 먹고 살려는 착한 백성한 사람의 죽음으로도 그런 공분이 일어나 조정이 무너지기도 하오. 선비가 공분을 모르고 정(政)발을 앞세우니 백성들이 무심하거나 기껏해야 현장으로 가는 수레 뒤에 붙그뜻이나 내미는 것이지요. 식자들은 어리석은 백성의 탓을 하나, 백성들의 도와 덕이 무엇보다도 그 생업을 바방으로 하고 있음을 모른 것입니다』
여환이 말하였다.
『갑자년의 일로 또 한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산지니라는 점제의 제원이 잡혔을 제, 그의 계속되는 심문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조정의 당파 분쟁을 이용한 일입니다. 흑세한 당에 줄이 있는듯이 공술을 시켜서 스스로 위험을 느낀 대신들이 포청에 압력을 넣어 죄수를 즉각 처형시켜 버렸답니다. 즉 조정의 파벌파 내분은 저편의 약처이므로 언제나 소상히 알아둘 필요가 있읍니다』
옥여가 말하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해서 감영의 구월산 토포에 대하여 그 득과 실을 가지고 의논하여 보겠소』
설우징이 잠시 뜸을 던지고 고쳐 앉더니 제안하였다.
『구월산의 불운에 관하여는 나도 멀리서 자세히 전해 들었소이다. 자비령에서 자탈이 왔었지요. 여기에 함께 제의형제를 하였고 또 그 형제들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들도 있소이다. 우리에게 죽은 이들을 그리고 애도하는 글이 없을 수 없으며, 그들에 드리는 북도나 조촐한 제를 올려야 합겠니다』
『북도는 할 수 있으나, 글은 회향이 끝난 뒤에 작은 제와 함께 써서 읽기로 하지요』

CENTRAL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752-7771

회 장 : 이 형 인
부 회 장 : 임 철 원
〃 : 김 명 정
이 사 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친선골프대회 성황 이룰듯

내주초(8월3일)캣슬모어 컨트리클럽에서 막을올리는 제1회 친선골프 대회에 대한 여러 애호가들의 관심의 열도가 높아가고 있음을 알수있다.

오늘 현재 신청된 골퍼는 100여명에 달하고있어 이번 대회는 교포사회의가장 규모큰 토너멘트가 될 것이라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다.

,이는 스토어를 경영하는 바쁜 시간중에도 골프를즐기는 많은 회원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본협회원이 아닌 이들도 이번 기회에 실협행사를 통해더욱 기대를 갖게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불만하는 이도 있겠으나 대국적인 의미에서 심신의 피로를풀고, 새로운 기분으로 자기사업에 매진할수 있다는 뜻에서 또한 교민사회의 단합과 일치를 스포츠를 통한 친교도 이룰수 있다는것을 양해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성대한 대회가 되기를바라면서 참여의 문을 넓혀 당일 12시까지 현장에서등록접수한다고 한다.

문예작품 응모마감연기
우편파업 끝날 때까지

오는 31일까지 문예작품 응모마감을 하려던 계획은 우편파업으로 인해 마감일을 무기연기하기로 했다.

혹시 응모 하려고준비된 작품들은 우편이 정상화 되는대로 협회 사무실로 우송하여 주기를 바란다.

적극적협조 요청
한인신용조합

백만달러 예금돌파기념 저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인신용조합은 본 협회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각 회원들에게 권장해주기를 청해왔다. 이는 지난 7월21일 코리아 하우스 별실(2층)에 모인 환담의 자리에서 알려졌다.

이 모임은 신용조합 임원들이 협회 간부들을 초청하여 저녁을 나누며, 그간의 유대감을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서로 아끼지 말자는 진지한 대화의 자리이기도 했다.

현재 협회는 회원들의적립기금을 신용조합 구좌에 예치시켜 두고있어 그 상당한 액수로 볼 때 조합에게는 최대의 고객이기도하다.

앞으로 계속 조합원의가입을 권장하고, 2백만달러 저축을 목표로 맹렬히 활동중인 조합에서 알려진흥미있는 저축방법들중 특히 성장저축, 어린이적금등은 많은 교민의 호응을 받고 있어 날로 성과가 늘어나고 있다한다.

이날 합석한 협회임원은 김태진 이사장, 이형인회장, 전윤식 부이사장, 차선겸총무이사이고, 신용조합 에서는 한상훈 이사장, 김학량 부이사장, 이홍렬 전무이사, 김연수 상무등이었다.

강도 예방 팜플렛
로스만회사발행

굴지의 담배제조업체인 로스만 담배회사는 한인소매상들을 위해 「상점강도예방」에 대한 한글 팜플렛을 제작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다.

지난 28일상오 로스만담배회사 본사 회의실에서그 책자출판기념회가 조촐하게 열려 이 자리에는 메트로 경찰국장 John W Ackroyd 씨와 검찰청차장 John Hihon 씨및 회사관계임원들, 그리고 본협회 김태진 이사장과 이형인회장이 참석했다.

그 출판동기는 작년9월 불의의 사건으로 희생된고 이봉재씨 사건을 계기로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하면 코一너 스토어를경영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기여할수 있겠는가 모색하던중 채택한 것이라 한다.

회사 당국자에 의하면이 책자는 동회사의 세일즈맨들을 통하여 직접 회원들 스토어에 배포될 것이다.

중반기 사무감사

지난 27일(월)하오 시30분 금년도 중반기 사무감사를 받았다. 협회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서동준 위원장과 위원인 백경락감사가 협회 사무실의 제반업무를 점검하고, 예산상에계획된 사업과 그 실시를 격려하는 뜻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여러 지적사항을 보완, 실시하기로 실무자들은 결심을 다졌으며, 수고한 감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유재신 목사 사임
11년간 몸담아온 한인교회 떠나

◇유재신 목사

10여년간 토론토 한인교회(353 Sherbourne St.)를 담임해온 유재신 목사가 교회내 분규가 계속되자 지난 26일 사임했다.

한인교회 일부교인들은 ①이 교회가 8년전 연합교단에 가입했으나 교회법으로 연합교회법 대신 한국장로교회법을 무원칙하게 적용하며, ②유목사에 대한 특별수당(연$1,800)지급및 목사용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인교회는 금년도 예산에 유목사 차량구입비를책정했으나 유목사는 사양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교인들은 이들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 26일 공동의회(전체신자 총회) 에서는 한동안 소란이 계속됐다. 노성봉 장로가 진행을 맡은 공동의회는 유목사의 사임을 발표하고, 새목사 초빙을 위한 목사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빙위원은 현 장로단에서 5명, 교회내 기관장에서 4명, 노회측에서 2명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목사 지지교인측이 내놓은 이 동의안은 133대 97표로 가결됐다.

유목사 사임과 함께 박웅국, 전동림 장로도 사임했다.

69년 유목사를 초대담임으로 해서 창설된 한인교회는 오랫동안 토론토 4대교회의 하나였다. 유목사는 그후 2년간 해밀턴 맥마스터대학에서 수학한 후 71년 다시 교회로 복귀했다. 한인교회의 신자가족은 약 250세대이다.

한편 공동의회에 앞서 연합교단에 사표를 낸 유목사는 28일 "교직자로서 한교회서 10년 이상을 봉직했으면 물러날 때가 온 것이다.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담담한 심정으로 교회를 떠난다. 다른 사람을 나무랄 의사는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교회분규 이후 밴쿠버에 다녀온 유목사는 "특히 나는 대학일로 점점 바빠졌다. 올 9월부터는 로스·맥도날드 교수(사망) 가 맡았던 한국종교 강의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삼국사기의 영역도 끝내야 하는 한편 신자학생들의 지도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비교종교학으로 맥마스터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유목사는 토론토대학 동양학과에서 한국문화사를 강의해 왔으며, 토론토대학에 한국학과를 독립과로 설치하려는 운동의 주동자였다. 유박사는 곧 부교수로 승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한인계 소식
강상권 지국장

한인청소년회 30여명으로 발족

런던한인청소년회가 지난 18일 V.C.C.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한인청소년 30여명이 참석, 회칙통과후 아래 임원을 뽑았다. 청소년회는 지난 6월27일 발기총회를 가졌었다.

회 장 : 홍원기
부 회 장 : 한인석·이승희
총 무 : 이명찬
서 기 : 이금주
회 계 : 이옥녕
봉사부장 : 김난영
섭외부장 : 김두제
문화부장 : 심중태
체육부장 : 정갑송

독립기념행사 참가 노래와 부용 선사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캐나다·데이」인 7월1일 런던지구 소수민족들은 시내 기본스공원에서 문화잔치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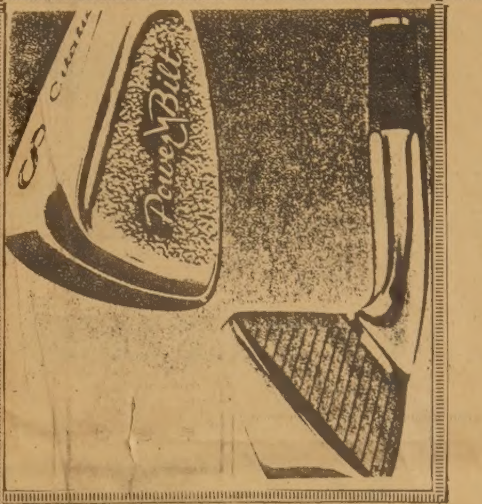
런던한인회는 이 행사에서 한인석씨 지휘로 캐나다 국가 선창, 그밖에 두곡의 합창도 불렀으며, 런던한글학교는 정옥자 교사 지도로 한국무용「꼭두각시춤」을 군무로 추어 갈채를 받았다.

경로 들놀이 런던 한인회

런던 한인회는 지난 6월20일 기본스공원에서 40여명의 노인을 모시고 각종 놀이·푸짐한 음식과 상품등의 경로잔치를 가졌다.

이날 상품회사자는 이석범·이기환·장세옥·박재근·정일송·마광훈·강상걸씨이고, 각종게임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개인특별상 : 홍숙자
할아버지우승상 : 박도원
할머니우승상 : 양승옥
노래자랑1등 : 서윤숙
〃 2등 : 오향진
〃 3등 : 공재성
장려상 : 이용태



제1회 한인실업인 협회 친선골프대회

장 소 : Castlemore Country Club
시 일 : 1981년8월3일 10시
참가자격 : 교민및 회원
참가인원 : 약110명 100
참 가 비 : 30달러(저녁식사 포함)
접 수 처 : 본협회 사무실(752-7771)
준비위원 : 이형인(224-1907)
김태진(249-3740)
차선겸(925-0339)
조정대(282-5632)
백경락(755-7635)

시상(회원)

- Gross Champion(Annual)
- Gross(1등에서 5등)
- Net A조(89이하)-1, 2, 3등
  B조(99이하)-1, 2, 3등
  C조(100이상)-1, 2, 3등
- Honest Golfer
- Nearest Hole라스베가스 여행권및 숙식1매
- Longest driver
- Hole in one(서울여행사 제공, 세계일주 여행권)

시상(비회원)

- Gross Champion(Annual)
- Gross(1등에서 5등)
- Net A조(99이하)-1, 2, 3등
  B조(100이상)-1, 2, 3등
- Nearest Hole라스베가스 여행권및 숙식 1매
- Longest driver
- Hole in one(서울여행사 제공 세계일주 여행권)

경품

- 1등에서 10등까지
※경품내용및 기증자 명단은 추후발표

※기타 각 도매상및 제조업체에서 보내온 많은 상품이 있아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보자도 환영)

"알리는 말씀"

본 협회 제1회 친선골프대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하게 됨을 알리오니 참조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 일동—

1. 티업(Tee off)시간 30분전에 접수 등록해 주십시요.
2. 조(team)편성에 차질이 있어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변경이 될 것입니다.
3. 당일 12시까지 현장에서 접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본 협회 회원중 회비 미납하신 회원은 회비를 지참하여 납부해 주십시요.

오전10시30분까지 나오셔야 할 분들

박영철	이기훈	윤여경	오석원
고광남	정정흥	최상수	백광수
박노욱	정 용	김창갑	정길수
이상훈	이상철	고종옥	노도윤
이장우	조성호	한상훈	김태환
윤태순	구상회	이창희	김택수
이영일	김동수	오현표	최동호
곽창수	이광민	함태호	유영갑
김경철	최호영	심재환	엄주면
김진기	송완일	차자윤	김만구
김영대	차인규	박기복	임경진
FRANK FARROW, JOHN CAME			

오전11시30분까지 나오셔야 할 분들

김태진	김현모	이창복	이영현
이상봉	강태영	김성택	원장호
백경락	조기연	홍진표	유영갑(Ro)
백운산	서준경	이춘수	정용주
임철원	강학수	송인문	신우현
함덕상	정창헌	강태룡	엄주익
최동주	백효중	김홍량	조정대
이학현	김인환	김수웅	김정태
심태섭	차영신	문영환	김인규
박경택	김병훈	김진수	송종남
이계민	이계섭	서명식	안극정
이장성	김영진	최영식	박상남
하청남	함태선	이상철	이병문
최무원	김태신		

12시30분까지 나오셔야 할 분들

박광현	남상현	채희홍	김덕수
이양구	김영호	윤기열	이해창
최학철	천용기	강준남	이형인
김정곤	McGRAIL,	MOOR,	유종철
유재령	김은하	박홍일	한천석
손병천	김구명	김우영	성낙신
박경덕	LEVINE,	MARTIN,	R. SMITH

주최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원 문예작품 공모

본 협회에서는 198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회원여러분의 문예작품을 모집하여 우수작을 시상코자 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십을 바랍니다.

—아 래—

응모마감 : 1981년 7월30일
작 품 : 수기, 시, 수필, 콩트등 원고제한 없음.
심사위원 : 추후 발표함
시 상 : 1등 상패및 부상($500현금)
2 〃 〃 ($200현금)
3 〃 〃 ($100현금)
원고제출처 : O.K.B.A.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원고 반환없음)

온타리오 한인실업인 협회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제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